

ETHER LIBRARY

0029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 · 1886

문학 · 단편 · 희곡 · 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은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1894)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86년 1월, 런던 롱먼스 그린 출판사. 이 책은 1886년판 본문을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를 영어 원전 1886년판에서 옮긴 완역본입니다.

소설은 1886년 1월 런던의 롱먼스 그린 출판사에서 얇은 한 권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1886년판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열 장의 제목은 원문 그대로 옮겼고, 원문 338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습니다. 제1장에서 엔필드가 들려주는 긴 이야기도 원문처럼 한 문단입니다.

세 가지 목소리

제1장부터 제8장까지는 3인칭 서술입니다. 서술자는 변호사 어터슨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그가 보고 듣고 짐작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절제와 마른 반어가 서술의 온도여서, 원문에 없는 감정의 말은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제9장은 래니언 박사가 어터슨에게 남긴 글이고, **제10장**은 헨리 지킬이 쓴 고백입니다. 둘 다 1인칭 글말로, 해라체(「나는 ~했다」)로 옮겼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친구 어터슨을 수신인으로 두고 쓰는 글이어서, 그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몇 마디(「자네도 알겠지만」, 「어터슨, 한 가지만 말하겠네」)만은 친구 사이의 말씨로 두었습니다.

래니언의 글은 의사가 사실을 차례로 적어 내려가는 마른 증언입니다. 지킬의 고백은 자기를 변호하는 긴 문장이 쌍반점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글이어서, 그

길고 유연한 호흡을 끊지 않으려고 원문이 한 문장으로 잇는 생각은 우리말에서도 이어 썼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어터슨, 지킬, 래니언처럼 오랜 벗인 신사들은 서로 하게체(「자네」, 「~하게」)로 말합니다. 어터슨의 먼 친척인 젊은 한량 엔필드만은 어터슨에게 해요체로 말합니다.

지킬 집안의 집사 풀은 어터슨을 「나리」라고 부르며 끝까지 깍듯한 합쇼체를 쓰고, 주인은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겁에 질려 말이 꼬일 때도 그 말씨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이드는 높임 없이 짧게 끊는 하오체로 말합니다.

그 밖의 것

옮긴이 주는 네 개만 달았습니다(제1장 「카인의 이단」과 「저거너트」, 제2장 「다몬과 피티아스」와 「펠 박사」). 성경에서 온 말(빌립보의 갇힌 자들, 바빌론 왕궁 벽의 손가락, 도피성)은 주 없이 본문에서 읽히게 했습니다.

제2장의 말장난 Hyde(숨다)와 Seek(찾다)는 「하이드(숨는) 씨」와 「찾는 씨」로 옮겼습니다.

원문은 해를 「18…년」처럼 가려 적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킬이 약에 넣는 흰 결정(salt)은 화학에서 말하는 염(鹽)이어서 「소금」이 아니라 「염」으로 옮겼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에서 옮겨 적다 빠지거나 바뀐 두 곳(제9장 「팅크가 든 약병 하나와 염 한 봉지」, 제10장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1886년판 본문대로 옮겼습니다.

돈과 날짜는 「100파운드」, 「1월 9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시각과 나이는 「새벽 세 시」, 「쉰 살」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말이 끊긴 자리만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등장인물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런던의 신사들

가브리엘 존 어터슨 · 변호사.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지만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이야기는 대부분 그의 곁에서 펼쳐진다.

리처드 엔필드 · 어터슨의 먼 친척으로, 사교계에 이름난 한량. 일요일마다 어터슨과 함께 말없이 산책한다.

헨리 지킬 박사 · 이름 높은 의사이자 학자. 어터슨의 오랜 친구이자 의뢰인이다. 어터슨과 래니언은 그를 「해리」라고도 부른다.

해스티 래니언 박사 · 캐번디시 스퀘어에 사는 이름난 의사. 어터슨, 지킬과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다.

에드워드 하이드 · 지킬의 유언장에 이름이 오른 수수께끼의 젊은이.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까닭 모를 혐오를 느낀다.

그 밖의 사람들

풀 · 지킬 박사 집의 늙은 집사. 스무 해 동안 주인을 모셨다.

브래드쇼 · 지킬 박사 집의 하인.

댄버스 커루 경 · 나이 지긋한 하원 의원. 어터슨의 의뢰인이다.

뉴커먼 경감 · 런던 경시청의 경찰.

게스트 · 어터슨의 수석 서기. 필적 감정에 밝다.

곳

그 문 · 런던의 번화한 동네, 상점이 늘어선 뒷골목 한쪽에 있는 창 없는 건물의 낡은 문.

지킬 박사의 집 · 뒷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오래된 광장에 있는 저택. 정원 끝에는 예전에 외과 의사가 쓰던 해부학 강의실 건물이 있고, 그 위층이 박사의 서재다.

소호 · 하이드가 산다는 런던의 음울한 동네.

차례

제1장 문 이야기 10

제2장 하이드 씨를 찾아서 18

제3장 지킬 박사는 아주 태연했다 28

제4장 커루 살인 사건 31

제5장 편지 사건 37

제6장 래니언 박사 사건 43

제7장 창가에서 생긴 일 48

제8장 마지막 밤 51

제9장 래니언 박사의 진술 66

제10장 헨리 지킬의 사건 전말 진술 75

제1장 문 이야기

변호사 어터슨 씨는 험상궂은 얼굴에 웃음이라고는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말할 때는 차갑고 말수가 적었으며 어딘가 어색해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굼떴다. 마르고 키가 크고 먼지를 뒤집어쓴 듯 칙칙하고 따분한데도, 어쩐지 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마음 맞는 이들과 모인 자리에서 포도주가 입에 맞을 때면 그의 눈에서는 더없이 사람다운 무언가가 등불처럼 비쳐 나왔다. 그것은 끝내 그의 말에 실려 나온 적이 없었지만, 저녁 식사를 마친 얼굴에 떠오르는 이런 말 없는 표지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자주, 더 크게 그가 살면서 하는 일들로 드러났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서, 혼자 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즐기는 입맛을 꺾으려고 진을 마셨고, 연극을 좋아하면서도 스무 해 동안 극장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에게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너그러워서, 남들이 못된 짓을 저지를 때 들끓는 그 엄청난 기운에 때로는 거의 부러움 섞인 놀라움을 느꼈고, 어떤 막다른 처지에서도 나무라기보다 도와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나는 카인의 이단 쪽이라네.[1]" 그는 별스럽게도 곧잘 이렇게 말했다. "내 형제가 제 좋을 대로 악마한테 가든 말든 내버려 두거든." 이런 성품 때문에 그는 몰락해 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점잖은 지인이자 마지막까지 남은 좋은 감화가 되는 일이 잦았다. 그런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한, 그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털끝만큼도 바꾸지 않았다.

어터슨 씨에게 그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분이 가장 좋을 때조차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우정마저 그와 비슷하게 누구에게나 고루 미치는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친구들을 기회가 손에 쥐여 주는 대로, 이미 짜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인데, 변호사가 바로 그랬다. 그의 친구는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이거나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그의 애정은 담쟁이덩굴처럼 세월이 키운 것이어서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가 먼 친척이자 사교계에서 이름난 한량인 리처드 엔필드 씨와 맺은 끈도 틀림없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둘이 무슨 이야깃거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는 많은 이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일요일마다 산책하는 두 사람과 마주친 이들의 말로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난히 따분해 보였으며, 아는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누가 보아도 반가운 기색으로 그를 불러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산책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 한 주의 으뜸가는 보석으로 쳤고, 아무 방해 없이 그것을 누리려고 즐길 거리를 제쳐 두었을 뿐 아니라 일의 부름까지 물리쳤다.

어느 날 이런 산책을 하다가 두 사람은 우연히 런던의 번화한 동네에 있는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은 좁고 이른바 조용한 곳이었지만, 평일에는 장사가 잘되었다. 주민들은 다들 벌이가 좋은 듯했고, 앞다투어 더 잘되기를 바라며 남는 돈을 가게를 꾸미는 데 쏟았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 앞은 웃음 짓는 여점원들이 줄지어 선 것처럼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일요일이면 골목은 한껏 화사한 매력을 조금 감추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비교적 드물었는데, 그런 날에도 칙칙한 주변 동네와 대조를 이루며 숲속에 붙은 불처럼 환하게 빛났다. 새로 칠한 덧문과 반들반들 닦은 놋쇠 장식,

어디나 깨끗하고 경쾌한 분위기 덕분에 골목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단번에 붙잡아 즐겁게 했다.

동쪽으로 가면서 보아 왼편, 한쪽 모퉁이에서 두 집 건너에 안마당으로 드는 어귀가 나 있어 가게들의 줄이 끊겼다. 바로 그 자리에 어딘가 불길해 보이는 건물 한 채가 박공을 길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이층 건물이었는데, 창문 하나 없이 아래층에는 문 하나만, 위층에는 빛바랜 벽이 눈먼 이마처럼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고, 어느 구석을 보아도 오랫동안 지저분하게 내버려 둔 흔적이 역력했다. 초인종도 문고리도 달리지 않은 그 문은 칠이 부풀고 얼룩져 있었다. 부랑자들이 문간 움푹한 데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와 문짝에 성냥을 그었고, 아이들은 계단에서 가게 놀이를 했으며, 학생들은 문틀 장식에 칼질을 해 보았다. 그런데도 거의 한 세대 가까이, 이 떠돌이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이 할퀴어 놓은 자리를 손보러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엔필드 씨와 변호사는 뒷골목 맞은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어귀와 나란히 이르렀을 때 엔필드 씨가 지팡이를 들어 가리켰다.

"저 문 눈여겨본 적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덧붙였다. "제 머릿속에서는 저 문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하고 엮여 있거든요."

"그래?" 어터슨 씨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무슨 이야기인가?"

"글쎄, 이렇게 된 일이에요." 엔필드 씨가 대답했다. "저는 세상 끝 어딘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시커먼 겨울날 새벽 세 시쯤이었고, 지나가는 동네는 말 그대로 가로등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거리를 지나도 또 거리,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거리를 지나도 또 거리, 무슨 행렬이라도 지나갈 것처럼 불은 다 켜져 있으면서도 교회 안처럼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러다 마침내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다가 순경 한 사람이라도 보고 싶어 애가 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때 갑자기 사람 둘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꽤 빠른 걸음으로 쿵쿵거리며 걷던 작달막한 사내였고, 다른 하나는 옆길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오던 여덟 살이나 열 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둘이 모퉁이에서 부딪쳤어요.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끔찍한 건 그다음이었는데, 그 사내가 아이 몸을 태연하게 짓밟고 지나가서는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땅바닥에 내버려 두었거든요.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지옥 같았어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빌어먹을 저거너트[2] 같았죠. 저는 몇 번 소리를 지르고는 냅다 뛰어가서 그 신사 양반 멱살을 잡고, 비명 지르는 아이 둘레에 벌써 사람들이 꽤 모여 있는 데까지 끌고 왔어요. 그자는 아주 침착했고 반항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한 번 쳐다보는 그 눈길이 어찌나 흉했던지 달음박질이라도 한 것처럼 식은땀이 다 솟았어요. 나와 있던 사람들은 아이네 식구들이었고, 이윽고 아이가 부르러 갔던 의사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글쎄, 그 돌팔이 말로는 아이가 크게 다친 데는 없고 놀란 게 더 크다고 하니, 그쯤 되면 일이 끝났으려니 하시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신사 양반을 보자마자 몸서리가 날 만큼 싫었어요. 아이 식구들도 그랬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건 놀라웠어요. 나이도 생김새도 이렇다 할 데 없는, 흔해 빠진 무미건조한 약사 겸 의사였는데, 에든버러 사투리가 심하고 감정이라고는 백파이프만큼이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서, 그 돌팔이가 제가 붙잡은 그자를 쳐다볼 때마다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에 속이 메슥거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속을 알았듯이 그 사람도 제 속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 그다음으로 좋은 걸 했죠. 이 일로 추문을 일으켜서 그쪽 이름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린내를 풍기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자한테 말했어요. 친구가 있든 신용이 있든 다 잃게 만들어 주겠다고 장담했죠. 그렇게 시뻘겋게 달아올라 몰아붙이는 내내, 우리는 여자들이 그자한테 달려들지 못하게 있는 힘껏 막아야 했는데, 여자들이 하르퓌이아처럼 사나워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증오에 찬 얼굴들이 빙 둘러선 건 처음 봤는데, 그 한가운데 그자가 시커멓게 비웃는 듯한 침착함을 하고 서 있었어요. 겁도 먹었더군요, 그건 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꾹 누르고 버티는 꼴이, 정말이지 사탄 같았어요. '이 사고로 한몫 잡을 작정이라면,' 그자가 말했어요. '나야 당연히 어쩔 도리가 없지. 소란 피우기 싫은 건 신사라면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액수를 대시오.' 글쎄, 우리는 아이네 식구들 몫으로 100파운드까지 그자를 쥐어짰어요. 그자는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지만, 우리 모두한테서 뭔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운이 풍겼는지, 결국 손을 들었어요. 다음은 돈을 받을 차례였는데, 그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바로 저 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자는 열쇠를 휙 꺼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금화로 10파운드쯤과 나머지 금액을 적은 쿠츠 은행 수표를 들고 나왔는데, 수표는 지참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서명된 이름은, 제 이야기의 요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무튼 적어도 아주 널리 알려지고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어요. 금액은 꽤 컸지만, 그 서명이 진짜이기만 하다면 그보다 더 큰돈에도 너끈히 통할 이름이었죠.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그 신사 양반한테, 이건 아무리 봐도 꾸며 낸 일 같다, 실제 세상에서는 새벽 네 시에 지하실 문 같은 데로 걸어 들어갔다가 남의 이름으로 된 100파운드 가까운 수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자는 태연하게 비웃기만 하더군요. '걱정 붙들어 매시오.' 그자가 말했어요. '은행 문 열 때까지 당신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직접 돈으로 바꿔 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의사하고 아이 아버지하고 우리 친구하고 저는 함께 길을 나서서 남은 밤을 제 집에서 보냈고,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나서 다 같이 은행으로 갔죠. 제가 직접 수표를 내밀면서, 이게 위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천만에요. 수표는 진짜였어요."

"쯧쯧." 어터슨 씨가 혀를 찼다.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 보네요." 엔필드 씨가 말했다. "그래요, 고약한 이야기예요. 제가 붙잡은 그자는 누구도 상종할 수 없는, 정말이지 저주받을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표를 끊은 사람은 점잖음의 본보기 같은 분인 데다 이름도 높고, 게다가 (이게 더 고약한 점인데) 이른바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예요. 공갈이겠죠, 정직한 사람이 젊은 시절의 무슨 철없는 짓 때문에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문 있는 집을 공갈 저택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그걸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그 말과 함께 생각에 잠겼다.

그를 생각에서 끌어낸 것은 어터슨 씨가 꽤 갑작스럽게 던진 물음이었다. "그러면 수표를 끊은 사람이 저기 사는지는 모르나?"

"그럴 만한 곳 같아요?" 엔필드 씨가 대꾸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사람 주소를 봤는데, 무슨 스퀘어인가에 살더라고요."

"그러면 저…… 문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나?" 어터슨 씨가 말했다.

"네, 그건 삼갔어요."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뭘 캐묻는 건 아주 질색인데, 꼭 최후의 심판 날 같아서예요. 물음 하나를 던지는 건 돌멩이 하나를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덕 꼭대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돌이 굴러가면서 다른 돌들을 건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웬 사람 좋은 노인네 하나가(제일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자기 집 뒤뜰에서

머리를 얻어맞고, 그 집 식구들은 성을 갈아야 하는 거죠. 아뇨, 저는 규칙을 하나 정해 두었어요. 수상쩍어 보일수록 덜 묻는다는 거요."

"그것참 아주 좋은 규칙이로군." 변호사가 말했다.

"그래도 저 집은 혼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엔필드 씨가 말을 이었다. "집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다른 문은 없고, 저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도 아주 가끔 제 모험의 그 신사 양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층에 안마당 쪽으로 난 창이 세 개 있고 아래층에는 하나도 없는데, 창은 늘 닫혀 있어도 깨끗하긴 해요. 그리고 굴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대개 연기가 나니, 누가 살긴 사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안마당 둘레에 건물들이 하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어디서 한 채가 끝나고 어디서 다른 한 채가 시작되는지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다시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어터슨 씨가 입을 열었다. "엔필드, 자네 그 규칙 참 좋은 규칙일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엔필드가 대답했다.

"그래도 말이야,"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네. 아이를 밟고 지나간 그 사내 이름을 묻고 싶어."

"글쎄요," 엔필드 씨가 말했다. "그거야 말씀드린다고 해될 것도 없겠죠. 하이드라는 이름의 사내였어요."

"흠." 어터슨 씨가 말했다.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던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김새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불쾌하고, 뭔가 정말이지 혐오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싫은 사람은 처음 봤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어딘가가 기형일 거예요, 기형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어디가 그런지는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이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렇다고 별난 데를 하나라도 대라면 정말이지 댈 수가 없어요. 아뇨, 도무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맹세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눈앞에 선하거든요."

어터슨 씨는 다시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무언가를 무겁게 곱씹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그자가 열쇠를 쓴 게 틀림없나?" 마침내 그가 물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엔필드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그래, 아네." 어터슨이 말했다. "이상하게 들리리라는 건 나도 아네. 사실은, 내가 다른 쪽 사람 이름을 묻지 않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일세. 리처드, 자네 이야기가 정곡을 찔렀단 말이야. 어디 한 군데라도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좋을 걸세."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상대가 조금 뾰로통해서 대꾸했다. "그래도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고지식할 만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자가 그 열쇠를 쓰는 걸 본 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터슨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젊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교훈을 또 하나 얻었네요." 그가 말했다. "제 긴 혀가 부끄러워요.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진심으로 그러세." 변호사가 말했다. "그 약속에 악수하세, 리처드."

---

1.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서 아우 아벨을 죽인 카인은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하느님의 물음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대답한다. 어터슨은 이 말을 농담 삼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기 신조로 빗댄다.

2. 인도 푸리의 신 자간나트의 신상을 실은 거대한 수레. 축제 때 신도들이 그 바퀴 아래 몸을 던져 깔려 죽는다는 이야기가 유럽에 퍼지면서, 무엇이든 가차 없이 짓밟고 나아가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제2장 하이드 씨를 찾아서

그날 저녁 어터슨 씨는 침울한 기분으로 독신자의 집에 돌아와 입맛도 없이 저녁 식탁에 앉았다. 일요일이면 식사를 마친 뒤 메마른 신학 책 한 권을 독서대에 펼쳐 놓고 난롯가에 바싹 붙어 앉아 있다가, 이웃 교회의 시계가 열두 시를 치면 차분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식탁보가 걷히자마자 촛불을 들고 일하는 방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금고를 열고, 가장 은밀한 칸에서 봉투 겉에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고 적힌 문서를 꺼내더니, 이마를 찌푸린 채 앉아 그 내용을 살폈다. 유언장은 자필이었는데, 어터슨 씨가 다 만들어진 지금에야 그것을 맡아 두고 있을 뿐 만드는 데는 털끝만큼도 거들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유언장에 따르면, 의학 박사·민법 박사·법학 박사·왕립학회 회원 등등인 헨리 지킬이 죽을 경우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벗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에 넘어갈 뿐 아니라, 지킬 박사가 「역법상 석 달을 넘는 기간 동안 실종되거나 까닭 모르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위 에드워드 하이드가 박사 집안 식구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을 치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부담이나 의무 없이 지체 없이 위 헨리 지킬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오래전부터 변호사의 눈엣가시였다. 변호사로서도, 그리고 삶의 건전하고 관례에 맞는 쪽을 사랑하며 엉뚱한 것을 곧 볼썽사나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서도, 그는 그 문서가 거슬렸다. 지금까지는 하이드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분노를 키웠는데, 이제는

느닷없이 사정이 뒤집혀 알게 된 것이 분노를 키웠다. 그 이름이 더 알아낼 길 없는 이름에 지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충분히 고약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혐오스러운 속성들을 옷처럼 걸치기 시작하자 더 고약해졌고, 그토록 오랫동안 그의 눈을 어지럽히던, 이리저리 흘러가며 잡히지 않던 안개 속에서 갑자기 악마의 모습이 또렷하게 튀어나왔다.

"미친 짓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는 그 불쾌한 종이를 금고에 도로 넣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까 두렵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촛불을 불어 끈 다음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의학의 성채인 캐번디시 스퀘어 쪽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의 친구인 이름난 래니언 박사가 거기 집을 두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맞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래니언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엄숙한 집사는 그를 알아보고 반겼다. 그는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에서 곧장 식당으로 안내되었는데, 래니언 박사가 혼자 포도주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래니언은 쾌활하고 건강하고 말쑥한 데다 얼굴이 불그레한 신사로, 일찍 하얗게 센 머리가 덥수룩했고 몸가짐은 떠들썩하고 시원시원했다. 그는 어터슨 씨를 보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내밀어 반겼다. 그 다정함은 그 사람이 늘 그렇듯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연극 같았지만, 그 밑에는 참된 감정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오랜 친구이자 옛 동무로, 둘 다 자기 자신과 서로를 철저히 존중했고, 이것이 늘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이였다.

잠시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눈 뒤, 변호사는 그토록 불쾌하게 마음을 짓누르던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갔다.

"래니언," 그가 말했다. "헨리 지킬한테 가장 오래된 친구라면 아마 자네하고 나 둘이겠지?"

"친구들이 좀 더 젊으면 좋으련만." 래니언 박사가 껄껄 웃었다. "하지만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왜? 요즘은 그 친구를 거의 못 보네."

"그래?" 어터슨이 말했다. "자네들은 관심사가 같아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랬지."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헨리 지킬이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엉뚱해진 지 벌써 열 해가 넘었어. 그 친구는 잘못되기 시작했네. 머리가 잘못되기 시작했단 말일세. 물론 이른바 옛정으로 지금도 관심은 두고 있지만, 그 친구 얼굴은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못 보았고 지금도 못 보고 있네. 그런 비과학적인 헛소리라면," 박사는 갑자기 얼굴이 자줏빛으로 달아오르며 덧붙였다. "다몬과 피티아스[1]라도 사이가 틀어졌을 걸세."

이렇게 조금 성을 내는 모습에 어터슨 씨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과학의 어떤 점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뿐이로군.' 그는 생각했다. 과학에는 아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부동산 양도 문서만은 예외였다), 그는 이렇게까지 덧붙였다. '그보다 나쁜 일은 아니야!' 그는 친구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기다렸다가, 묻고자 찾아온 문제로 다가갔다. "그 친구가 돌봐 주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 하이드라는 자 말일세." 그가 물었다.

"하이드?" 래니언이 되뇌었다.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이야. 내가 발을 끊은 뒤에 생긴 사람이겠지."

변호사가 얻어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그것이 전부였고, 그는 그것을 안고 커다랗고 어두운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으며, 그러는 사이 새벽의 작은 시간들이 점점 커져 갔다. 순전한 어둠 속에서 애쓰며 물음들에 에워싸인 그의 머리에는 조금도 편할 틈이 없는 밤이었다.

어터슨 씨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종이 여섯 시를 쳤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문제를 파고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문제는

그의 지성에만 닿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상상력까지 끌려들었다. 아니, 사로잡혔다. 커튼을 친 방, 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누워 뒤척이는 동안, 엔필드 씨의 이야기가 불 밝힌 그림 두루마리처럼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밤 도시의 드넓은 등불 밭이 눈에 들어오고, 이어 빠르게 걸어가는 사내의 모습, 이어 의사 집에서 달려 나오는 아이가 보였고, 그러다 둘이 마주치자 그 인간 저거너트는 아이를 짓밟고는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갔다. 아니면 어느 부잣집의 방 하나가 보였는데, 그 방에서는 그의 친구가 꿈을 꾸며 꿈에 미소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 그 방의 문이 열리고 침대의 커튼이 확 젖혀지며 잠든 이가 불려 깨어나면, 보라! 그 곁에 어떤 힘을 받은 형상 하나가 서 있었고, 그는 그렇게 죽은 듯 고요한 시각에도 일어나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두 가지 모습을 한 그 형상이 밤새 변호사를 따라다녔다. 어쩌다 깜박 졸기라도 하면, 그것은 잠든 집들 사이로 더욱 살그머니 미끄러져 다니거나, 등불 밝힌 도시의 더 넓은 미로를 더욱 빠르게, 그리고 어지러울 만큼 더욱더 빠르게 지나다니며, 길모퉁이마다 아이 하나를 짓밟고는 비명 지르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도 그 형상에게는 알아볼 얼굴이 없어서, 꿈속에서조차 얼굴이 없거나, 있어도 그를 어리둥절하게 하며 눈앞에서 녹아 버렸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마음에는 진짜 하이드 씨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유난히 강한, 거의 지나치다 싶은 호기심이 생겨나 빠르게 자랐다. 단 한 번이라도 그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수수께끼가 가벼워지고, 수수께끼란 것이 잘 들여다보면 흔히 그러듯이 아예 걷혀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친구의 그 이상한 편애, 아니면 속박(어느 쪽이라 부르든 상관없다)에도, 그리고 유언장의 그 놀라운 조항에도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몰랐다. 적어도 그것은 볼 만한 얼굴, 자비라고는 창자 속 어디에도 없는 사람의

얼굴,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 엔필드의 마음에조차 내보이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는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얼굴일 터였다.

그때부터 어터슨 씨는 상점 골목의 그 문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일을 보기 전에, 한낮에는 일은 많고 시간은 모자랄 때, 밤에는 안개 낀 도시의 달 아래서, 어떤 빛 아래서든, 사람이 없든 북적이든 어느 시각에든, 변호사는 자기가 고른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그자가 하이드(숨는) 씨라면," 그는 생각했다. "나는 찾는 씨가 되어 주마."

마침내 그의 끈기가 보답을 받았다. 맑고 메마른 밤이었다. 공기에는 서리가 서렸고, 거리는 무도회장 마루처럼 깨끗했으며, 바람 한 점 없어 흔들리지 않는 가로등들이 빛과 그림자의 무늬를 가지런히 그려 놓았다. 가게들이 문을 닫은 열 시 무렵, 그 뒷골목은 아주 쓸쓸했고, 사방에서 런던이 낮게 으르렁거리는데도 아주 조용했다. 작은 소리도 멀리까지 퍼져서, 길 양쪽 집들에서 집안 살림 소리가 또렷이 들렸고, 행인이 다가오면 그 기척이 그보다 한참 먼저 와 닿았다. 어터슨 씨가 그 자리에 선 지 몇 분이 지났을 때, 이상하게 가벼운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밤마다 순찰하듯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직 아주 멀리 있을 때 도시의 거대한 웅성거림과 덜컹거림 속에서 갑자기 또렷하게 튀어나오는 그 묘한 효과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주의가 이토록 날카롭고 단호하게 붙들린 적은 없었고, 그는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강하고 미신 같은 예감을 품고 안마당 어귀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길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크게 부풀었다. 어귀에서 내다보던 변호사는 이윽고 자기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옷차림이 아주 수수했는데, 그렇게 멀리서 보아도 그의 생김새는 어쩐지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아끼려고 길을 가로질러 곧장 문으로 향했고, 다가오면서 집에 다 온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터슨 씨는 앞으로 나서서 지나가는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하이드 씨 아니시오?"

하이드 씨는 쉿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켜고 뒤로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한순간뿐이었다. 그는 변호사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꽤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이름이오. 무슨 볼일이오?"

"들어가시려는 참인 모양이구려." 변호사가 대꾸했다. "나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요. 곤트 가의 어터슨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은 들어 보셨을 거요. 마침 이렇게 잘 만났으니 나를 들여보내 주실 수 있겠나 싶었소."

"지킬 박사는 못 만날 거요. 집에 없으니까." 하이드 씨는 열쇠에 훅 바람을 불어 넣으며 대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래도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나를 어떻게 알았소?"

"그 대신," 어터슨 씨가 말했다. "그쪽에서도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소?"

"기꺼이." 상대가 대답했다. "무슨 부탁이오?"

"얼굴을 좀 보여 주시겠소?" 변호사가 물었다.

하이드 씨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무언가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도전하듯 홱 돌아섰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서로를 꽤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제 다시 만나면 알아보겠소." 어터슨 씨가 말했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하이드 씨가 대꾸했다. "만난 것도 잘된 일이오. 그런 김에 내 주소도 알아 두시오." 그러고는 소호의 어느 거리 번지수를 알려 주었다.

'맙소사!' 어터슨 씨는 생각했다. '이자도 유언장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속마음을 감추고, 주소를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그저 끙 소리만 냈다.

"그런데," 상대가 말했다. "나를 어떻게 알았소?"

"인상착의를 듣고." 대답이 돌아왔다.

"누구한테서?"

"우리한테는 아는 사람이 같이 있소." 어터슨 씨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같이 있다," 하이드 씨가 조금 쉰 목소리로 되뇌었다. "누구 말이오?"

"이를테면 지킬 말이오." 변호사가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한테 말한 적 없소." 하이드 씨가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보시오," 어터슨 씨가 말했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버릇이오."

상대는 크게 으르렁거리더니 사나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놀랄 만큼 재빠르게 문을 따고 집 안으로 사라졌다.

하이드 씨가 떠난 뒤 변호사는 불안의 화신처럼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한두 걸음마다 멈춰 서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걸으며 따져 보던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부류의 문제였다. 하이드 씨는 창백하고 난쟁이 같았으며, 이름 붙일 만한 기형은 하나도 없는데도 기형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웃음이 불쾌했으며, 변호사를 대할 때 소심함과 대담함이 살기등등하게 뒤섞인 태도를 보였고, 쉬고 속삭이는 듯한, 어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한 점이었지만, 이것을 다 합쳐도 어터슨 씨가 그를 보며 느낀, 지금껏 몰랐던 역겨움과 혐오와 두려움은 설명할 수 없었다. "뭔가 다른 게 있어." 당혹스러운 신사가 중얼거렸다. "이름만 붙일 수 있다면, 뭔가가

더 있어. 맙소사, 그자는 사람 같지가 않아! 혈거인 같은 데가 있다고 할까? 아니면 펠 박사[2]의 해묵은 이야기일까? 아니면 더러운 영혼의 빛이 그렇게 흙으로 빚은 그릇을 뚫고 배어 나와 그릇의 모습까지 바꿔 놓은 것뿐일까? 마지막 것이겠지. 아, 가엾은 내 오랜 친구 해리 지킬, 내가 사람 얼굴에서 사탄의 서명을 읽은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네 새 친구의 얼굴일세."

그 뒷골목에서 모퉁이를 돌면 오래되고 멋진 집들이 둘러선 광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높았던 지체에서 몰락해 온갖 처지와 형편의 사람들, 지도 판각사, 건축가, 수상쩍은 변호사, 정체 모를 사업의 대리인 같은 이들에게 층이나 방으로 쪼개어 세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만은 여전히 한 사람이 통째로 쓰고 있었다. 그 집 문은 지금은 문 위 채광창 말고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부유하고 안락한 기운을 크게 풍겼는데, 어터슨 씨는 그 문 앞에 멈춰 서서 문을 두드렸다. 옷을 잘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하인이 문을 열었다.

"지킬 박사 계신가, 풀?" 변호사가 물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터슨 나리." 풀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님을 크고 천장이 낮고 아늑한 현관 홀로 들였다. 바닥에 판석을 깐 그 홀은 (시골 저택처럼)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로 따뜻했고, 값비싼 떡갈나무 장식장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 불 옆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나리? 아니면 식당에 불을 밝혀 드릴까요?"

"여기가 좋겠네, 고맙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가가서 높은 난로 울에 몸을 기댔다. 이제 그가 혼자 남은 이 홀은 그의 친구인 박사가 무척 아끼는 곳이었고, 어터슨 자신도 곧잘 런던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방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핏속에 오싹한 기운이 돌았고, 하이드의 얼굴이 기억에 무겁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는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는데) 삶에 메스꺼움과 싫증을 느꼈고, 침울한

마음으로 바라보자니 반들반들한 장식장 위에 일렁이는 불빛과 천장에서 불안하게 움찔거리는 그림자에서 무슨 위협이 읽히는 것만 같았다. 이윽고 돌아온 풀이 지킬 박사가 외출했다고 알리자, 그는 마음이 놓이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이드 씨가 옛 해부실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네, 풀." 그가 말했다. "지킬 박사가 집에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건가?"

"괜찮습니다, 어터슨 나리." 하인이 대답했다. "하이드 씨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네 주인이 그 젊은이를 무척 믿는 모양이로군, 풀." 상대가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네, 나리, 정말 그렇습니다." 풀이 말했다. "저희는 모두 그분 말씀을 따르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이드 씨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터슨이 물었다.

"아이고, 아닙니다, 나리. 그분은 여기서 식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사가 대답했다. "사실 집 이쪽에서는 그분을 거의 뵙지 못합니다. 그분은 대개 실험실로 드나드십니다."

"그럼, 잘 자게, 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터슨 나리."

그리고 변호사는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가엾은 해리 지킬,' 그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 젊을 때 방탕했지.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하느님의 법에는 시효라는 게 없어. 그래, 틀림없이 그거야. 해묵은 죄의 유령, 감춰 둔 망신의 암 덩어리. 기억은 오래전에 잊고 자기애는 잘못을 눈감아 준 뒤에야, 여러 해 뒤에야 벌이 절름거리는 발로(pede claudo) 찾아오는 거지.' 변호사는 그 생각에 겁이 나서 한동안 자기 과거를 곱씹으며, 행여 해묵은 죄 하나가 뚜껑을 열면 튀어나오는 인형처럼 거기서 불쑥 빛

속으로 튀어나오지나 않을까 하고 기억의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그의 과거는 꽤 흠잡을 데 없어서, 자기 삶의 기록을 그보다 덜 불안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저지른 숱한 나쁜 일을 떠올리며 먼지 속까지 낮아졌고, 하마터면 저지를 뻔했지만 피해 간 숱한 일을 떠올리며 다시 차분하고 두려운 감사 속으로 일으켜 세워졌다. 그러다 앞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그는 희망의 불꽃 하나를 품게 되었다. '이 하이드 군을 잘 캐 보면,' 그는 생각했다. '그자한테도 틀림없이 제 비밀이 있을 거야. 생긴 꼴로 보아 시커먼 비밀이겠지. 가엾은 지킬의 가장 나쁜 비밀도 그에 비하면 햇빛 같을 그런 비밀 말이야. 이대로 갈 수는 없어. 그런 작자가 도둑처럼 해리의 침대 머리맡으로 숨어드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가엾은 해리, 얼마나 끔찍한 깨어남인가! 게다가 위험하기도 하지, 이 하이드라는 자가 유언장이 있다는 걸 눈치채면, 물려받고 싶어 몸이 달지도 모르니까. 그래, 내가 어깨를 걸고 나서야 해. 지킬이 허락만 해 준다면.' 그는 덧붙였다. '지킬이 허락만 해 준다면.' 그의 마음의 눈앞에 다시 한번 유언장의 그 이상한 조항들이 환등 그림처럼 또렷이 떠올랐던 것이다.

---

1. 기원전 4세기 시라쿠사의 두 친구. 폭군 디오니시오스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피티아스가 집안일을 정리하러 다녀오는 동안 다몬이 대신 볼모가 되었고, 피티아스는 약속대로 돌아왔다. 변치 않는 우정의 본보기로 일컬어진다.

2. 영국의 오래된 동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펠 박사님. 그 까닭은 말할 수 없어요」에서 나온 말. 까닭 없이 드는 반감을 가리킨다.

제3장 지킬 박사는 아주 태연했다

두 주 뒤, 참으로 운 좋게도 박사가 오랜 벗 대여섯을 불러 그 기분 좋은 만찬을 한 차례 베풀었는데, 모두 지성 있고 평판 좋은 사람들이자 좋은 포도주를 가릴 줄 아는 이들이었고, 어터슨 씨는 다른 손님들이 떠난 뒤에도 자기만 남아 있도록 일을 꾸몄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있었던 일이었다. 어터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아했다. 마음 가볍고 입 가벼운 이들이 벌써 문턱에 발을 올려놓을 때면, 주인들은 이 무뚝뚝한 변호사를 붙잡아 두기를 좋아했고, 떠들썩하게 즐기느라 힘을 쓰고 애를 쓴 뒤에는 나서지 않는 그의 곁에 잠시 앉아 혼자 있을 때를 미리 익히고, 그 사람의 넉넉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좋아했다. 지킬 박사도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난롯불 맞은편에 앉은 그는 크고 잘생긴, 매끈한 얼굴의 쉰 살 남자로, 어쩌면 멋을 부리는 기색이 조금 있었지만 능력과 다정함의 표지를 빠짐없이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만 보아도 그가 어터슨 씨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네, 지킬." 어터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그 유언장 알지?"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그 화제가 달갑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사는 쾌활하게 넘겼다. "가엾은 어터슨," 그가 말했다. "자네는 이런 의뢰인을 만나서 참 운이 없구먼. 자네가 내 유언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만큼 괴로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래니언, 그

고리타분한 꽁생원이 내 과학적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빼면 말일세. 아,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네. 얼굴 찌푸릴 것 없어. 훌륭한 친구고 언제나 좀 더 자주 만나야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리타분한 꽁생원인 건 어쩔 수 없어, 무식하고 시끄러운 꽁생원이지. 나는 래니언만큼 실망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내가 그걸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는 건 자네도 알지." 어터슨은 새로 꺼낸 화제를 사정없이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내 유언장 말인가? 그래, 물론 알지." 박사가 조금 날카롭게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말하겠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젊은 하이드에 대해 좀 알게 된 게 있어서 말일세."

지킬 박사의 크고 잘생긴 얼굴이 입술까지 하얗게 질리고, 눈가에 검은 그늘이 졌다. "더 듣고 싶지 않네." 그가 말했다. "그 일은 그만 덮어두기로 우리가 합의한 줄 알았는데."

"내가 들은 건 끔찍한 일이었네." 어터슨이 말했다.

"그래 봤자 달라질 건 없어. 자네는 내 처지를 몰라." 박사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로 대꾸했다. "나는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네, 어터슨. 내 처지는 아주 이상해. 아주 이상한 처지란 말일세. 말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지킬," 어터슨이 말했다. "자네는 나를 알지.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비밀은 지킬 테니 숨김없이 털어놓게. 틀림없이 내가 자네를 거기서 빼내 줄 수 있을 걸세."

"어터슨, 이 사람아," 박사가 말했다. "참 고마운 말일세. 정말이지 고마운 말이야. 무슨 말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는 자네를 온전히 믿고, 고를 수만 있다면 살아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 나 자신보다도 자네를 먼저 믿을 걸세. 하지만 정말이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자네의 그 착한 마음을 놓이게 하려고 한 가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 순간 하이드 씨를 떨쳐 버릴 수 있어. 그 점은 이렇게 악수로 다짐하겠네. 거듭거듭 고맙네. 그리고 자네라면 좋게 받아들이리라 믿고 한마디만 덧붙이겠네, 어터슨. 이건 사사로운 일이니, 제발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두게."

어터슨은 난롯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네 말이 전적으로 옳겠지."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이 일을 꺼낸 김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네만," 박사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네. 나는 가엾은 하이드한테 정말로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있어. 자네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 사람이 말해 주어서 알고 있고, 무례하게 굴었을까 봐 걱정일세.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 젊은이에게 크나큰, 정말 크나큰 관심을 두고 있네. 그러니 어터슨,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네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고 그 사람 몫의 권리를 찾아 주겠다고 약속해 주게. 자네가 모든 걸 안다면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하네만, 약속해 준다면 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걸세."

"내가 그자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말할 수 없네." 변호사가 말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닐세." 지킬은 상대의 팔에 손을 얹으며 간청했다. "공정하게만 대해 달라는 거야. 내가 더는 여기 없을 때, 나를 봐서 그 사람을 도와 달라는 것뿐일세."

어터슨은 참을 수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네." 그가 말했다. "약속하지."

제4장 커루 살인 사건

거의 한 해가 지난 18…년 10월, 런던은 유난히 잔혹한 데다 피해자의 지위가 높아 더욱 세상의 눈길을 끈 범죄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 알려진 사실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놀라웠다. 강에서 멀지 않은 어느 집에 혼자 살던 하녀가 열한 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새벽녘에는 안개가 도시를 덮었지만 초저녁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하녀의 창문이 내려다보는 골목은 보름달 빛에 환히 밝았다. 하녀는 낭만을 즐기는 성미였던 모양으로, 창문 바로 아래 놓인 제 상자에 걸터앉아 꿈결 같은 상념에 잠겼다. 그때만큼(나중에 그 일을 이야기할 때면 하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늘 이렇게 말했다) 그때만큼 모든 사람과 평화롭다고 느낀 적도, 세상을 너그럽게 여긴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아름다운 노신사 한 사람이 골목을 따라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를 맞이하듯 마주 오는 또 한 사람, 몸집이 아주 작은 신사도 있었는데, 처음에 하녀는 그쪽에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말이 들릴 만한 거리까지 가까워지자(바로 하녀의 눈 아래였다), 나이 든 사람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척 고상하고 예의 바른 몸짓으로 상대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건네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면 때로는 그저 길을 묻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안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하녀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는데, 그 얼굴에서는 순진하고 옛 시절다운

다정한 성품이 숨 쉬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마땅한 근거가 있는 자족감 같은 높은 기품도 느껴졌다. 이윽고 하녀의 눈길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갔는데, 놀랍게도 그는 하녀가 아는 하이드 씨라는 사람이었다. 한때 하녀의 주인을 찾아온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녀는 그때 그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는 손에 묵직한 지팡이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고, 참을성 없는 기색을 제대로 감추지도 못한 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느닷없이 그는 분노로 활활 타오르며 발을 구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녀의 표현으로는) 미치광이처럼 날뛰었다. 노신사는 몹시 놀라고 조금 마음이 상한 듯한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러자 하이드 씨는 아예 고삐가 풀려, 지팡이로 그를 내리쳐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원숭이 같은 광포함으로 피해자를 발로 짓밟으며 우박처럼 매질을 퍼부었는데, 그 매질에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고 몸뚱이가 길바닥에서 튀어 올랐다. 그 끔찍한 광경과 소리에 하녀는 정신을 잃었다.

하녀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부른 것은 두 시였다. 살인자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지만, 피해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채 골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흉기로 쓰인 지팡이는 드물고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도, 이 분별없는 잔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한가운데가 부러져 있었고, 쪼개진 반쪽은 옆 도랑으로 굴러가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틀림없이 살인자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지갑과 금시계가 나왔지만, 명함이나 서류는 하나도 없었고, 봉인하고 우표를 붙인 봉투 한 통만 있었다. 아마 우체통에 넣으러 가던 길이었을 그 봉투에는 어터슨 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봉투는 이튿날 아침 변호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것을 보고 사정을 듣자마자 엄숙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시신을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가 말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일지도 모르오. 옷을 입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아침을 서둘러 먹은 뒤, 시신이 옮겨져 있는 경찰서로 마차를 몰았다. 유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가 말했다. "알아보겠소. 안타깝게도 이분은 댄버스 커루 경이오."

"맙소사, 변호사님," 경관이 외쳤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직업적인 야심으로 반짝였다. "이거 세상이 떠들썩해지겠군요." 그가 말했다. "어쩌면 변호사님께서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녀가 본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부러진 지팡이를 보여 주었다.

어터슨 씨는 하이드라는 이름을 듣고 이미 움찔했지만, 지팡이가 눈앞에 놓이자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부러지고 망가졌어도, 그것은 여러 해 전에 그가 직접 헨리 지킬에게 선물한 지팡이였다.

"그 하이드 씨라는 사람, 키가 작소?" 그가 물었다.

"하녀 말로는 유난히 작고 유난히 사악해 보인답니다." 경관이 말했다.

어터슨 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내 마차를 같이 타고 가신다면," 그가 말했다. "그자의 집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소."

이때가 아침 아홉 시쯤이었는데, 그 철 들어 처음 낀 안개였다. 초콜릿빛깔의 거대한 장막이 하늘 위로 낮게 드리워 있었지만, 바람이 쉴 새 없이 이 진을 친 수증기를 들이치고 흩뜨려 놓아서, 마차가 이 거리 저 거리로 기어가는 동안, 어터슨 씨는 놀랄 만큼 갖가지 정도와 빛깔의 어스름을 보았다. 여기서는 저물녘 끝자락처럼 어둡다가, 저기서는 무슨

기이한 큰불의 빛처럼 짙고 음산한 갈색으로 빛났고, 또 여기서는 한순간 안개가 아주 걷히며 소용돌이치는 안개 다발 사이로 핼쑥한 햇살 한 줄기가 비껴 들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언뜻언뜻한 빛 아래 보이는 음울한 소호 거리는, 질척한 길이며 꾀죄죄한 행인들이며,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거나 이 처량하게 다시 쳐들어온 어둠과 싸우려고 새로 불을 붙인 가로등들과 함께, 변호사의 눈에는 악몽 속 어느 도시의 한 구역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의 머릿속 생각도 더없이 어두운 빛깔이어서, 마차에 함께 탄 사람을 힐끗 볼 때면 그는 법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 대한 두려움,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도 이따금 덮쳐 오는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조금 느꼈다.

마차가 알려 준 주소 앞에 멈추자 안개가 조금 걷히면서 지저분한 거리와 번쩍번쩍한 싸구려 술집, 허름한 프랑스 음식점, 1페니짜리 연재물과 2펜스짜리 샐러드를 파는 가게, 출입구마다 웅크린 누더기 차림의 아이들, 그리고 저마다 나라가 다른 여자들이 열쇠를 손에 들고 아침 술 한 잔을 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안개가 엄버 물감처럼 갈색으로 그 동네를 다시 덮으며, 그를 그 불한당 같은 주변과 갈라놓았다. 바로 이곳이 헨리 지킬이 총애하는 사람, 25만 파운드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집이었다.

상아처럼 하얀 얼굴에 은빛 머리를 한 노파가 문을 열었다. 위선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사악한 얼굴이었지만, 몸가짐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네, 여기가 하이드 씨 댁이지만 그분은 집에 없다고 노파는 말했다. 간밤에 아주 늦게 들어오셨지만 한 시간도 안 되어 다시 나가셨는데, 그게 이상할 건 없는 것이 그분은 생활이 아주 불규칙하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고 했다. 이를테면 어제 뵙기 전까지는 거의 두 달 동안 그분을 못 뵈었다는 것이다.

"좋소, 그렇다면 그 사람 방을 좀 봐야겠소." 변호사가 말했다. 노파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가 덧붙였다. "이분이 누구신지 말해 두는 게 좋겠군. 런던 경시청의 뉴커먼 경감이오."

노파의 얼굴에 역겨운 기쁨이 번쩍 스쳤다. "아!" 노파가 말했다. "그 양반이 무슨 일을 당했군요! 무슨 짓을 했나요?"

어터슨 씨와 경감은 눈길을 주고받았다. "인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닌 모양이군요." 경감이 한마디 했다. "자, 할머니, 나하고 이 신사분이 좀 둘러보게 해 주시오."

노파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 전체에서 하이드 씨는 방 두어 개만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들은 호화롭고 고상한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장에는 포도주가 가득했고, 식기는 은이었으며, 식탁보와 냅킨은 우아했다. 벽에는 좋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어터슨이 짐작하기로는 감식안이 꽤 높은 헨리 지킬이 준 선물이었고, 양탄자는 여러 겹으로 두툼했고 빛깔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지금 그 방들에는 최근에 서둘러 마구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옷가지들이 주머니가 뒤집힌 채 바닥에 널려 있었고, 자물쇠 달린 서랍들이 열려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많은 종이를 태운 듯 잿빛 재가 수북했다. 경감은 이 잿더미에서 불길을 견뎌 낸 초록색 수표책의 밑동을 파냈고, 지팡이의 나머지 반쪽은 문 뒤에서 나왔다. 이것으로 의심이 굳어지자 경감은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은행에 가 보니 살인자 앞으로 몇천 파운드가 예금되어 있었고, 이로써 그의 흡족함은 완전해졌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님." 그가 어터슨 씨에게 말했다. "그자는 이제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자는 정신이 나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팡이를 두고 가거나, 무엇보다 수표책을 태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놈한테 돈은 목숨입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그자를 기다리고 수배 전단만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이드 씨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하녀의 주인조차 그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었고, 그의 가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다. 그를 묘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흔히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마다 말이 크게 달랐다. 그들이 뜻을 같이하는 점은 단 하나, 그 도망자가 자기를 본 사람들에게 남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기형의 느낌이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다는 점뿐이었다.

제5장 편지 사건

늦은 오후, 어터슨 씨가 지킬 박사의 집 문 앞에 이르자 풀이 곧바로 그를 들였고, 부엌 딸린 방들을 지나 한때 정원이었던 마당을 가로질러, 실험실이라고도 하고 해부실이라고도 하는 건물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다. 박사는 이름난 외과 의사의 상속인들에게서 이 집을 사들였는데, 자기 취미가 해부학보다는 화학 쪽이었으므로 정원 끝에 있는 그 건물의 쓰임새를 바꾸어 놓았다. 변호사가 친구의 집에서 그쪽으로 안내받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는 창 하나 없는 그 칙칙한 건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한때 열심인 학생들로 붐볐으나 지금은 휑하니 고요하게 누워 있는 강의실을 가로지르며, 화학 기구가 잔뜩 실린 탁자들과 상자가 흩어지고 포장용 짚이 어지러이 널린 바닥, 안개 낀 둥근 천창으로 희미하게 떨어지는 빛을 불쾌하리만큼 낯선 느낌으로 둘러보았다. 맞은편 끝에는 계단이 붉은 모직 천을 씌운 문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문을 지나 어터슨 씨는 마침내 박사의 서재로 들어섰다. 사방에 유리문 달린 장을 둘러 세운 큰 방이었는데, 다른 것들과 함께 큰 체경 하나와 업무용 책상이 놓여 있었고, 쇠창살을 댄 먼지 낀 창 세 개로 안마당이 내다보였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집 안에까지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으므로 벽난로 선반에는 불 켠 등잔이 놓여 있었고, 그 곁, 온기 가까이에 지킬 박사가 죽을병이 든 사람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손님을 맞으러 일어나지 않고 차가운 손만 내밀며, 달라진 목소리로 어서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풀이 나가자마자 어터슨 씨가 말했다. "소식은 들었나?"

박사는 몸서리를 쳤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소리쳐 알리고 있더군." 그가 말했다. "식당에서 들었네."

"한마디만 하겠네." 변호사가 말했다. "커루는 내 의뢰인이었지만 자네도 내 의뢰인이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네. 자네 설마 그자를 숨겨 줄 만큼 정신이 나가지는 않았겠지?"

"어터슨, 하느님께 맹세하네." 박사가 외쳤다. "하느님께 맹세코 다시는 그자를 보지 않겠네. 이 세상에서 그자와는 끝이라고 내 명예를 걸고 자네에게 약속하지. 다 끝났어. 게다가 그자는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자네는 나만큼 그자를 몰라. 그자는 무사해, 아주 무사하다고. 내 말 잘 들어 두게. 그자 소식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걸세."

변호사는 침울하게 듣고 있었는데, 친구의 들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자를 꽤 확신하는 모양이로군." 그가 말했다. "자네를 위해서라도 자네 말이 맞기를 바라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자네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자를 확신하네." 지킬이 대답했다.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확신의 근거가 있어. 그런데 자네한테 조언을 구할 일이 하나 있네. 나는……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이걸 경찰에 보여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 자네 손에 맡겨 두고 싶네, 어터슨. 자네라면 틀림없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야. 나는 자네를 그토록 깊이 믿네."

"그게 그자를 잡는 단서가 될까 봐 걱정하는 모양이지?"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 상대가 말했다. "솔직히 하이드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네. 나는 그자와는 완전히 끝났어. 내가 생각한 건 이 끔찍한 일 때문에 꽤 드러나 버린 내 평판이야."

어터슨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 친구의 이기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알았네." 마침내 그가 말했다. "편지를 보여 주게."

편지는 묘하게 꼿꼿한 글씨로 쓰였고 「 에드워드 하이드 」 라고 서명되어 있었고, 내용은 꽤 간단했다. 글쓴이의 은인인 지킬 박사, 그동안 베풀어 준 수많은 너그러움을 자기가 오랫동안 그토록 못되게 갚아 온 그분은 글쓴이의 안전을 두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글쓴이에게는 확실히 믿을 만한 도망칠 방도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 편지가 꽤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그 친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은 빛깔로 보였고, 그는 지난날의 의심 가운데 몇 가지를 두고 자신을 나무랐다.

"봉투는 있나?" 그가 물었다.

"태워 버렸네." 지킬이 대답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일세. 하지만 소인은 없었어. 누가 직접 가져온 쪽지였네."

"이걸 내가 가져가서 하룻밤 생각해 볼까?" 어터슨이 물었다.

"전적으로 자네가 나 대신 판단해 주었으면 하네."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

"그럼, 생각해 보겠네." 변호사가 대꾸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지. 자네 유언장의 그 실종 조항을 불러 준 게 하이드였나?"

박사는 갑자기 현기증이 이는 듯 보였고,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네." 어터슨이 말했다. "그자는 자네를 죽일 작정이었어. 자네는 용케 살아난 거야."

"그보다 훨씬 더 요긴한 걸 얻었네." 박사가 엄숙하게 대꾸했다. "교훈을 얻었어. 아, 하느님, 어터슨, 나는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가는 길에 변호사는 걸음을 멈추고 풀과 몇 마디 나누었다. "그건 그렇고," 그가 말했다. "오늘 누가 편지를 직접 가져왔다던데, 심부름꾼이 어떻게 생겼던가?" 그러나 풀은 우편 말고는 아무것도 온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것도 광고지뿐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손님은 다시 되살아난 두려움을 안고 그 집을 나섰다. 그 편지는 분명 실험실 문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어쩌면 서재에서 쓰였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판단을 달리해야 했고,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신문팔이 소년들이 길가를 따라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었다. "호외요! 하원 의원 참혹하게 살해!" 그것이 한 친구이자 의뢰인을 보내는 추도사였고, 그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좋은 이름이 이 추문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적어도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은 까다로운 것이었고, 습관처럼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대놓고 얻을 수는 없는 조언이었지만, 낚아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얼마 뒤 그는 자기 집 벽난로 한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석 서기인 게스트 씨가 앉아 있었으며, 그 둘 사이, 불에서 알맞게 잘 잰 거리에, 오랫동안 햇빛 한 번 못 보고 그의 집 지하 깊숙이 묵어 온 특별한 오래된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물에 잠긴 듯한 도시 위에 날개를 펴고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들이 그 속에서 홍옥처럼 깜박였다. 내려앉은 구름의 이 먹먹하고 숨 막히는 장막을 뚫고, 도시의 삶의 행렬이 여전히 거센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큰 혈관들을 따라 굴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은 난롯불로 환하고 즐거웠다. 병 속에서 신맛은 오래전에 녹아 사라졌고, 진한 자줏빛은 채색 유리창의 빛깔이 짙어 가듯 세월과 함께 부드러워졌으며, 언덕배기 포도밭에 내리쬐던 뜨거운 가을 오후의 빛이 이제 풀려나 런던의 안개를

흩어 놓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다. 그가 게스트 씨만큼 비밀을 덜 감추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자기가 감추려고 마음먹은 만큼 감추고 있는지조차 늘 자신이 없었다. 게스트는 일 때문에 박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풀을 알았으며, 하이드 씨가 그 집을 제집처럼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 없으니, 무슨 결론을 끌어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 수수께끼를 바로잡아 줄 편지를 그에게 보여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더구나 게스트는 필적을 깊이 연구하고 감정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친절한 일로 여기지 않을까? 게다가 그 서기는 조언에 밝은 사람이라 그토록 이상한 문서를 읽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리 없었고, 그 한마디로 어터슨 씨는 앞으로 갈 길을 정할 수 있을 것이었다.

"댄버스 경 일은 참 안된 일이야." 그가 말했다.

"네, 나리,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척 들끓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대답했다. "물론 그자는 미친 사람이었겠지요."

"그 점에 대해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어터슨이 대꾸했다. "여기 그자가 쓴 문서가 하나 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 우리끼리 이야기일세. 어떻게 보든 고약한 일이야. 아무튼 여기 있네. 자네 전문 분야지. 살인자의 친필이야."

게스트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곧바로 자리를 잡고 앉아 열정적으로 그것을 살폈다. "아닙니다, 나리." 그가 말했다.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묘한 글씨군요."

"듣자 하니 쓴 사람도 아주 묘한 사람이라더군." 변호사가 덧붙였다.

바로 그때 하인이 쪽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지킬 박사님한테서 온 겁니까, 나리?" 서기가 물었다. "글씨를 알아보겠다 싶어서요. 사사로운 내용입니까, 어터슨 나리?"

"그냥 만찬 초대일세. 왜? 보고 싶은가?"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나리." 서기는 종이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그 내용을 꼼꼼히 견주어 보았다. "고맙습니다, 나리." 마침내 그가 두 장을 다 돌려주며 말했다. "아주 흥미로운 친필입니다."

잠시 말이 끊겼고, 그동안 어터슨 씨는 속으로 갈등했다. "왜 두 장을 견주어 보았나, 게스트?" 그가 불쑥 물었다.

"그게, 나리," 서기가 대답했다. "꽤 별스럽게 닮은 데가 있어서요. 두 글씨는 여러 점에서 똑같습니다. 기울기만 다를 뿐이지요."

"그것참 묘하군." 어터슨이 말했다.

"말씀대로 그것참 묘합니다." 게스트가 대꾸했다.

"이 쪽지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겠네." 주인이 말했다.

"네, 나리." 서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가 되자마자 어터슨 씨는 그 쪽지를 금고에 넣고 잠갔고, 쪽지는 그때부터 줄곧 거기 잠들어 있었다. '이럴 수가!' 그는 생각했다. '헨리 지킬이 살인자를 위해 위조를 하다니!' 그리고 그의 핏줄 속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제6장 래니언 박사 사건

시간은 흘러갔고, 댄버스 경의 죽음은 공공의 피해로 여겨져 분노를 샀으므로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하이드 씨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경찰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의 과거가 꽤 많이 파헤쳐지기는 했는데, 모두 평판이 나쁜 것뿐이었다. 그 사내의 잔인함, 무정하면서도 난폭한 그 잔인함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의 추악한 삶과 이상한 패거리와 그의 행적을 늘 둘러싸고 있었던 듯한 증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는 속삭임 한마디 들리지 않았다. 살인이 있던 날 아침 소호의 집을 떠난 때부터 그는 깨끗이 지워져 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터슨 씨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 차츰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댄버스 경의 죽음은 하이드 씨가 사라진 것으로 보상받고도 남았다. 그 사악한 영향이 걷히자 지킬 박사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틀어박혀 지내던 생활에서 나와 친구들과 다시 사귀었고, 다시 그들이 스스럼없이 찾는 손님이자 그들을 대접하는 주인이 되었으며, 예전부터 자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신앙으로도 그에 못지않게 이름이 났다. 그는 바빴고, 바깥 공기를 많이 쐬었으며, 좋은 일을 했다. 남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속 자각 때문인 듯 그의 얼굴은 활짝 열리고 밝아졌고, 두 달 넘게 박사는 평화로웠다.

1월 8일, 어터슨은 몇 사람 안 되는 손님들과 함께 박사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래니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집주인의 얼굴은 셋이 떨어질 줄

모르는 친구였던 옛 시절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12일에, 그리고 14일에 다시, 변호사 앞에서 문이 닫혔다. "박사님은 집 안에 틀어박혀 계시고," 풀이 말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15일에 그는 다시 찾아갔다가 또 거절당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날마다 친구를 만나는 데 익숙해 있었던 터라, 다시 찾아온 이 고독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섯째 날 밤에 그는 게스트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고, 여섯째 날 밤에는 래니언 박사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는 적어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선 그는 박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형 집행 영장이 똑똑히 쓰여 있었다. 혈색 좋던 사람이 창백해졌고, 살이 빠졌으며, 눈에 띄게 머리가 벗어지고 늙어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의 눈길을 붙든 것은 이렇게 빠르게 몸이 무너져 가는 표지들보다도, 마음 깊숙이 뿌리박힌 어떤 공포를 증언하는 듯한 눈빛과 몸가짐이었다. 의사가 죽음을 두려워할 리는 없었는데도, 어터슨은 바로 그것을 의심하고 싶어졌다. '그래,' 그는 생각했다. '의사니까 자기 상태를 알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 앎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어터슨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래니언은 몹시 굳센 태도로 자기는 죽을 운명이라고 밝혔다.

"충격을 받았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걸세. 몇 주 남지 않았어. 그래, 삶은 즐거웠네. 나는 삶을 좋아했어. 그렇다네, 좋아하곤 했지. 이따금 생각하네만, 우리가 모든 걸 안다면 떠나는 걸 더 반길 걸세."

"지킬도 앓고 있네." 어터슨이 말했다. "그 친구를 만나 보았나?"

그러나 래니언은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지킬 박사 얘기라면 더는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네." 그가 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 내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 이야기는 제발 꺼내지 말아 주게."

"쯧쯧." 어터슨 씨가 혀를 찼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나? 우리 셋은 아주 오랜 친구일세, 래니언. 살아서 새 친구를 사귈 날은 이제 없을 걸세."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래니언이 대답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게."

"그 친구는 나를 만나 주지 않네." 변호사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네." 대답이 돌아왔다. "어터슨, 언젠가 내가 죽은 뒤에 자네는 어쩌면 이 일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될지도 모르네. 나는 말해 줄 수 없어. 그리고 그때까지, 자네가 나하고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제발 머물러서 그렇게 해 주게. 하지만 이 저주받은 화제를 피할 수 없다면, 제발 가 주게.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터슨은 자리에 앉아 지킬에게 편지를 써서, 집에 들여 주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며 래니언과 이렇게 불행하게 사이가 틀어진 까닭을 물었다. 이튿날 긴 답장이 왔는데, 곳곳에 무척 애처로운 말이 담겨 있었고, 때로는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게 어둡고 수수께끼 같았다. 래니언과의 다툼은 고칠 길이 없다고 했다. "나는 우리 옛 친구를 탓하지 않네." 지킬은 이렇게 썼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친구의 생각에는 나도 같은 생각일세. 나는 이제부터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살 작정이네. 내 집 문이 자네한테조차 자주 닫혀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내 우정을 의심하지도 말게. 나를 내 어두운 길로 가게 내버려 두어야 하네.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벌과 위험을 스스로 불러들였네. 내가 죄인 가운데 으뜸이라면,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으뜸일세. 사람의 넋을 이토록 빼놓는 고통과 공포가 들어설 자리가 이 땅 위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 어터슨, 이

운명을 가볍게 해 주려고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니, 내 침묵을 존중해 주게." 어터슨은 깜짝 놀랐다. 하이드의 어두운 영향은 걷혔고, 박사는 옛 일과 옛 친구들에게 돌아왔으며, 한 주 전만 해도 앞날은 즐겁고 존경받는 노년을 고루 약속하며 웃음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우정도, 마음의 평화도, 삶의 흐름 전체도 무너져 버렸다. 이토록 크고 느닷없는 변화는 광기를 가리켰지만, 래니언의 태도와 말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더 깊은 까닭이 있을 것이었다.

한 주 뒤 래니언 박사는 자리에 누웠고, 두 주가 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몹시 슬픔에 잠겼던 어터슨은 장례식 다음 날 밤 일하는 방의 문을 잠그고, 쓸쓸한 촛불 아래 앉아 죽은 친구의 손으로 주소를 쓰고 그의 인장으로 봉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앞에 놓았다. "친전. G. J. 어터슨 한 사람만 열어 볼 것.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읽지 말고 없앨 것." 봉투 겉에는 이렇게 힘주어 쓰여 있었고, 변호사는 그 내용을 보기가 두려웠다. '오늘 친구 하나를 묻었는데,' 그는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를 잃게 되면 어쩌나?' 그러다 그는 그런 두려움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꾸짖고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봉해져 있었고, 겉에 「헨리 지킬 박사가 죽거나 실종되기 전에는 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터슨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 실종이었다. 오래전에 그 주인에게 돌려준 그 미친 유언장에서처럼, 여기서 또다시 실종이라는 생각과 헨리 지킬이라는 이름이 한데 묶여 있었다. 그러나 유언장에서 그 생각은 하이드라는 사내의 불길한 귀띔에서 나와, 너무도 뻔하고 끔찍한 목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래니언의 손으로 쓰인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금지 따위는 무시하고 당장 이 수수께끼들의 밑바닥까지 뛰어들고 싶은 엄청난 호기심이 수탁자의 가슴에

밀려들었다. 그러나 직업상의 명예와 죽은 친구에 대한 신의는 엄격한 의무였고, 그 꾸러미는 그의 개인 금고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잠들었다.

호기심을 누르는 것과 호기심을 이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어서, 그날부터 어터슨이 살아남은 친구와 어울리기를 예전처럼 간절히 바랐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는 그 친구를 다정하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는 실제로 찾아가기는 했지만, 어쩌면 들여보내 주지 않아 마음이 놓였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택한 속박의 집에 들어가 그 속을 알 수 없는 은둔자와 앉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간 계단에 서서 탁 트인 도시의 공기와 소리에 둘러싸여 풀과 이야기하는 편을 어쩌면 속으로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풀이 전해 줄 소식도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박사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실험실 위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며, 때로는 거기서 잠까지 자는 듯했다. 기운이 없고, 몹시 말이 없어졌으며, 책도 읽지 않아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어터슨은 늘 똑같은 이런 소식에 아주 익숙해져서, 조금씩 찾아가는 횟수를 줄여 갔다.

제7장 창가에서 생긴 일

어느 일요일, 어터슨 씨가 엔필드 씨와 함께 늘 하던 산책을 하는데, 마침 길이 다시 그 뒷골목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그 문 앞에 이르자 둘 다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엔필드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끝났네요. 하이드 씨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네." 어터슨이 말했다. "내가 한 번 그자를 보았고, 자네처럼 역겨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가?"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안 할 수가 없죠." 엔필드가 대꾸했다. "그건 그렇고, 이게 지킬 박사 댁으로 통하는 뒷길이라는 걸 몰랐으니 저를 얼마나 바보로 여기셨겠어요! 그나마 제가 그걸 알아낸 것도 반쯤은 어터슨 씨 탓이었고요."

"그래, 알아냈단 말이지?" 어터슨이 말했다. "그렇다면 안마당에 들어가서 창문들을 한번 살펴보세.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가엾은 지킬이 걱정이네. 밖에서라도 친구가 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안마당은 무척 서늘하고 조금 축축했으며, 머리 위 높은 하늘은 아직 저녁노을로 밝은데도 때 이른 어스름이 가득했다. 세 창문 가운데 가운데 창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바로 곁에 앉아 시름에 잠긴 죄수처럼 한없이 슬픈 얼굴로 바람을 쐬고 있는 지킬 박사가 어터슨의 눈에 들어왔다.

"아니! 지킬!" 그가 외쳤다. "좀 나아졌기를 바라네."

"아주 기운이 없네, 어터슨." 박사가 쓸쓸하게 대답했다. "아주 기운이 없어. 하느님 고맙게도 오래가지는 않을 걸세."

"집 안에만 너무 틀어박혀 있어서 그래." 변호사가 말했다. "엔필드 씨와 나처럼 밖에 나와서 피를 좀 돌게 해야지. (이쪽은 내 사촌일세. 엔필드 씨, 지킬 박사.) 자, 모자 쓰고 나와서 우리랑 한 바퀴 휙 돌세."

"참 고마운 말일세." 상대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무척 그러고 싶네. 하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될 일이야. 엄두가 나지 않네. 그래도 정말이지, 어터슨, 자네를 보니 아주 반갑네. 이건 참으로 큰 기쁨일세. 자네하고 엔필드 씨를 위로 모시고 싶네만, 여기는 정말이지 손님을 들일 만한 곳이 못 되네."

"그렇다면야," 변호사가 사람 좋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여기 아래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자네와 이야기하는 걸세."

"나도 바로 그렇게 해 보자고 감히 말하려던 참이었네."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에 나오기가 무섭게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지워지듯 사라지고, 아래 있던 두 신사의 피를 그대로 얼어붙게 할 만큼 처참한 공포와 절망의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창문이 곧바로 홱 닫혀 버렸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한순간 언뜻 보았을 뿐이었지만, 그 한순간으로 충분했고,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서 안마당을 떠났다. 뒷골목을 지날 때도 그들은 말이 없었고, 일요일인데도 여전히 사람 사는 기척이 조금 느껴지는 근처 큰길에 이르러서야, 어터슨 씨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동행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했고, 서로의 눈에 같은 공포가 비쳐 있었다.

"하느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어터슨 씨가 말했다.

그러나 엔필드 씨는 아주 심각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제8장 마지막 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어터슨 씨가 난롯가에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풀이 찾아왔다.

"아니, 풀, 웬일인가?" 그가 외쳤다. 그러다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나? 박사가 아픈가?"

"어터슨 나리," 사내가 말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앉게, 여기 포도주도 한 잔 있네." 변호사가 말했다. "자, 천천히, 원하는 게 뭔지 똑똑히 말해 보게."

"나리도 박사님 버릇은 아시지요." 풀이 대답했다. "그렇게 틀어박히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서재에 틀어박히셨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리. 마음에 든다면 벼락을 맞아도 좋습니다. 어터슨 나리, 저는 무섭습니다."

"이 사람아," 변호사가 말했다. "분명하게 말해 보게. 무엇이 무섭다는 건가?"

"한 주쯤 전부터 무서웠습니다." 풀은 물음을 고집스럽게 못 들은 척하며 대꾸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내의 모습이 그 말을 넉넉히 뒷받침해서, 그의 태도는 나쁜 쪽으로 달라져 있었고 처음 무섭다고 털어놓던 순간 말고는 한 번도 변호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지금도 그는 입도 대지 않은 포도주 잔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방바닥 한구석에 눈길을 두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되풀이했다.

"자," 변호사가 말했다. "자네한테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는 건 알겠네, 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겠어. 그게 무엇인지 말해 보게."

"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흉한 일이라니!" 꽤 겁이 나서 그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려던 변호사가 외쳤다. "무슨 흉한 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리." 대답이 돌아왔다. "저와 함께 가셔서 직접 보시겠습니까?"

어터슨 씨는 대답 대신 일어나 모자와 두꺼운 외투를 챙겼지만, 그러면서 집사의 얼굴에 떠오른 크나큰 안도의 빛을 보고 놀랐고, 그에 못지않게, 뒤따라 나서려고 잔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포도주에 입도 대지 않았다는 것에도 놀랐는지 모른다.

바람에 기울어진 듯 하얗게 바랜 달이 등을 대고 누워 있고 더없이 투명하고 얇은 천 같은 조각구름이 날아가는, 거칠고 추운 3월다운 밤이었다. 바람 때문에 말을 하기 어려웠고, 얼굴에는 피가 몰려 붉은 얼룩이 졌다. 게다가 바람이 거리를 유난히 말끔히 쓸어 낸 듯 행인이 없어서, 어터슨 씨는 런던의 그 동네가 이렇게 텅 빈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차라리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만지고 싶다는 바람을 이토록 날카롭게 느꼈는데, 아무리 애써도 재앙이 닥치리라는 짓누르는 예감이 마음속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른 광장은 바람과 먼지로 가득했고, 가운데 뜰의 가냘픈 나무들은 쇠울타리에 제 몸을 채찍질하듯 부딪치고 있었다. 오는 내내 한두 걸음 앞서 걷던 풀은 이제 보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살을 에는 날씨인데도 모자를 벗더니 붉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나 서둘러 오기는 했어도 그가 닦아 낸 것은 힘을 써서 맺힌 땀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어떤 고뇌가 짜낸 진땀이었으니,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을 열자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자, 나리," 그가 말했다. "다 왔습니다. 하느님,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소서."

"아멘이네, 풀."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자 하인은 몹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사슬을 건 채로 열렸고, 안에서 목소리가 물었다. "풀이에요?"

"괜찮아." 풀이 말했다. "문 열어."

그들이 들어선 현관 홀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벽난로에는 불을 높이 지펴 놓았으며, 그 둘레에 남녀 하인들이 모두 양 떼처럼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다. 어터슨 씨를 보자 하녀는 발작하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요리사는 "하느님 고맙기도 하지! 어터슨 나리세요." 하고 외치며 그를 껴안기라도 할 듯 달려 나왔다.

"뭐야, 뭐야? 다들 여기 있는 건가?" 변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주 법도에 어긋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로군. 자네들 주인이 알면 조금도 좋아하지 않을 걸세."

"다들 무서워서 그럽니다." 풀이 말했다.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 없이 멍한 침묵이 흘렀다. 다만 하녀만 목소리를 높여 이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입 다물어!" 풀이 하녀에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그 자신의 신경도 몹시 곤두서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하녀가 그렇게 갑자기 울음소리를 높였을 때 그들은 모두 화들짝 놀라, 무서운 일을 기다리는 얼굴로 안쪽 문을 돌아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집사는 칼 닦는 아이에게 말을 이었다. "촛불 하나 갖다 다오. 당장 이 일을 끝장내야겠다." 그런 다음 그는 어터슨 씨에게 따라와 달라고 청하고 앞장서서 뒤뜰로 나갔다.

"자, 나리," 그가 말했다. "되도록 살그머니 오십시오. 나리께서 들으시되, 나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리, 혹시라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뜻밖의 말로 끝맺자 어터슨 씨의 신경이 움찔하며 하마터면 몸의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용기를 되찾아 집사를 따라 실험실 건물로 들어가, 상자와 병이 잡동사니처럼 쌓인 외과 강의실을 지나 계단 밑에 이르렀다. 여기서 풀은 그에게 한쪽에 비켜서서 들어 보라고 손짓하고는, 자기는 촛불을 내려놓더니 누가 보아도 있는 결심을 다 짜내는 기색으로 계단을 올라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의 붉은 모직 천을 두드렸다.

"어터슨 나리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가 외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세차게 손짓했다.

안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전하게." 투덜거리는 목소리였다.

"고맙습니다, 나리." 풀은 승리감 같은 것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촛불을 집어 들고 어터슨 씨를 데리고 마당을 다시 가로질러 큰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바닥에서는 바퀴벌레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리," 그는 어터슨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게 주인님 목소리였습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네." 변호사는 몹시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그 눈길을 맞받으며 대답했다.

"달라졌다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가 말했다. "제가 이분 댁에서 스무 해를 지냈는데, 그 목소리에 속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리. 주인님은 누가 해치웠습니다. 여드레 전에, 주인님이 하느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걸 저희가 들었을 때 누가 해치운

겁니다. 그런데 주인님 대신 저 안에 있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게 왜 저기 머물러 있는지, 그건 하늘에 대고 울부짖을 일입니다, 어터슨 나리!"

"이건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군, 풀. 이 사람아, 이건 꽤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어터슨 씨가 손가락을 깨물며 말했다. "자네 짐작대로라고 치세. 지킬 박사가, 그러니까, 살해되었다고 치자고. 그렇다면 살인자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나?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일세."

"글쎄요, 어터슨 나리, 나리는 납득시키기 어려운 분이지만,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풀이 말했다. "지난 한 주 내내(나리도 아셔야 합니다) 저 서재에 사는 그 사람, 아니 그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밤낮없이 무슨 약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마음에 드는 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주인님 말씀입니다만, 때로 분부를 종이에 적어서 계단에 던져 두시곤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받은 건 그것뿐, 쪽지와 닫힌 문뿐이었고, 식사조차 거기 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그런데 나리, 날마다, 그래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분부와 불평이 내려왔고, 저는 시내의 약품 도매상이란 도매상은 다 날아다니듯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순수하지 않으니 돌려주라는 쪽지가 또 나왔고, 다른 가게에 낼 주문서가 또 나왔습니다. 무엇에 쓰려는지는 몰라도, 이 약이 지독하게도 급한 모양입니다, 나리."

"그 쪽지 가진 게 있나?" 어터슨 씨가 물었다.

풀은 주머니를 더듬어 구겨진 쪽지 한 장을 내밀었고, 변호사는 촛불 가까이 몸을 숙이고 꼼꼼히 살폈다. 내용은 이러했다. "지킬 박사가 모 상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귀사가 지난번에 보낸 견본은 불순하여 지금 그의 목적에는 전혀 쓸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8…년에 지킬

박사는 모 상회에서 꽤 많은 양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 더없이 정성껏 찾아봐 주시기를, 그리고 같은 품질의 것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보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킬 박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지가 꽤 침착하게 이어졌지만, 이 대목에서 갑자기 펜이 튀며 쓴 사람의 감정이 터져 나와 있었다. "제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옛날 것을 좀 찾아 주시오."

"이상한 쪽지로군." 어터슨 씨가 말했다. 그러다 날카롭게 물었다. "이걸 어떻게 자네가 펴 보게 되었나?"

"모 상회 사람이 몹시 화가 나서, 나리, 쓰레기처럼 이걸 저한테 도로 던졌습니다." 풀이 대꾸했다.

"이건 틀림없이 박사 글씨일세. 자네도 알겠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저도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하인은 조금 뾰로통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글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봤다고?" 어터슨 씨가 되뇌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풀이 말했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제가 정원에서 갑자기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약인지 뭔지를 찾으러 슬그머니 나와 있었던 모양으로,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그게 방 저쪽 끝에서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게 고개를 들고 무슨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위층 서재로 휙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걸 본 건 1분도 채 안 되었지만, 머리카락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곤두섰습니다. 나리, 그게 주인님이라면 어째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주인님이라면 어째서 쥐새끼처럼 찍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서 달아났겠습니까? 저는 주인님을 모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하나같이 아주 이상한 일들이로군." 어터슨 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네. 풀, 자네 주인은 분명히 앓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모습까지 일그러뜨리는 그런 병에 걸린 걸세. 그러니 어쩌면 목소리도 달라졌을 테고, 그러니 가면을 쓰고 친구들을 피하는 것이고, 그러니 가엾게도 언젠가는 나으리라는 희망을 붙들게 해 주는 그 약을 그토록 애타게 찾는 걸세. 하느님, 그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해 주소서! 이게 내 설명일세. 생각하면 무척 슬프고, 그래, 끔찍하기도 하지, 풀. 하지만 분명하고 자연스럽고, 앞뒤가 잘 맞으며, 우리를 터무니없는 불안에서 모두 건져 주네."

"나리," 집사가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건 우리 주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여기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이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체격이 훌륭한 분인데, 그건 오히려 난쟁이에 가까웠습니다." 어터슨이 반박하려 했다. "아이고, 나리," 풀이 외쳤다. "제가 스무 해를 모신 주인님을 몰라보겠습니까? 평생 아침마다 주인님을 뵌 그 서재 문에서 주인님 머리가 어디쯤 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리. 가면을 쓴 그것은 결코 지킬 박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만, 결코 지킬 박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인이 벌어졌다고 마음 깊이 믿습니다."

"풀," 변호사가 대답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확인하는 것이 내 의무가 되겠군. 자네 주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친구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듯한 이 쪽지가 아무리 알쏭달쏭하더라도, 나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내 의무로 여기겠네."

"아, 어터슨 나리,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집사가 외쳤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일세." 어터슨이 말을 이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나?"

"그야, 나리와 저지요." 겁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말 한번 잘했네." 변호사가 대꾸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네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네."

"강의실에 도끼가 하나 있습니다." 풀이 말을 이었다. "나리께서는 부엌 부지깽이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그 투박하지만 묵직한 연장을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풀, 자네 알고 있나?"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자네하고 내가 지금 꽤 위험한 처지에 몸을 던지려 한다는 걸 말일세."

"정말 그렇고말고요, 나리." 집사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겠네." 상대가 말했다. "우리 둘 다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 숨김없이 털어놓세. 자네가 본 그 가면 쓴 형체 말일세, 누군지 알아보았나?"

"글쎄요, 나리, 워낙 순식간이었고 그게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맹세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게 하이드 씨였느냐는 말씀이라면, 그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몸집이 거의 같았고, 재빠르고 가벼운 그 몸놀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 사건 때 그자가 아직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잊지 않으셨겠지요, 나리?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터슨 나리, 그 하이드 씨를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네." 변호사가 말했다.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

"그렇다면 나리께서도 저희처럼 아시겠군요. 그 신사한테는 뭔가 괴상한 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뜩하게 하는 무언가가요. 제대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리. 그저 뼛속이 어쩐지 싸늘하고 가늘어지는 느낌이었다고밖에는요."

"자네 말 같은 느낌을 나도 좀 받았다는 걸 인정하네." 어터슨 씨가 말했다.

"그렇지요, 나리." 풀이 대꾸했다. "그런데 원숭이 같은 그 가면 쓴 것이 약품들 사이에서 펄쩍 뛰어나와 서재로 휙 들어가는데, 등골을 따라 얼음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어터슨 나리. 저도 그 정도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는 느낌이라는 게 있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건대 그건 하이드 씨였습니다!"

"그래, 그래." 변호사가 말했다. "내 두려움도 같은 쪽으로 기우네. 그 관계에서는 악이, 내 두려워하던 대로, 악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걸세. 그래, 정말로 자네 말을 믿네. 가엾은 해리는 죽임을 당했고, 그 살인자는 (무슨 목적인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만) 아직도 피해자의 방에 숨어 있다고 나는 믿네. 좋아, 우리 이름을 복수라 하세. 브래드쇼를 부르게."

부름을 받고 온 하인은 얼굴이 몹시 하얗고 떨고 있었다.

"정신 차리게, 브래드쇼." 변호사가 말했다.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게 자네들 모두에게 견디기 힘들다는 건 아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끝낼 작정일세. 여기 풀하고 나는 서재로 쳐들어갈 걸세. 아무 일도 없다면 그 책임은 내 넓은 어깨가 다 짊어지겠네. 그동안 혹시라도 정말로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악당이 뒤쪽으로 달아나려 할지 모르니, 자네와 그 아이는 튼튼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모퉁이를 돌아가 실험실 문에서 지키고 서 있게. 자리 잡는 데 10분을 주겠네."

브래드쇼가 나가자 변호사는 시계를 보았다. "자, 풀, 우리도 우리 자리로 가세." 그는 그렇게 말하고 부지깽이를 겨드랑이에 낀 채 앞장서

마당으로 나갔다. 조각구름이 달 위로 몰려들어 이제는 아주 캄캄했다. 깊은 우물처럼 건물들에 둘러싸인 그곳에는 바람이 이따금 휙휙 불어닥칠 뿐이었는데, 그 바람이 그들의 발치에서 촛불을 이리저리 흔드는 사이 그들은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고, 거기 말없이 앉아 기다렸다. 사방에서 런던이 엄숙하게 웅웅거렸지만, 가까운 곳의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서재 바닥을 이리저리 오가는 발소리뿐이었다.

"저렇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나리." 풀이 속삭였다. "그래요, 밤에도 거의 내내 그럽니다. 약품상에서 새 견본이 올 때만 잠깐 그칠 뿐입니다. 아, 저렇게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양심이 어지간히 괴로운 게지요! 아, 나리, 저 발걸음마다 더럽게 흘린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 보십시오,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귀에 모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터슨 나리. 저게 박사님 발소리입니까?"

발소리는 가볍고 묘했으며, 그렇게 느리게 걷는데도 어딘가 흔들거리는 가락이 있어서, 헨리 지킬의 무겁고 삐걱거리는 걸음과는 정말이지 달랐다. 어터슨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소리는 전혀 없나?" 그가 물었다.

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그가 말했다. "한 번은 저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운다고? 어떻게?" 변호사가 말했다. 갑자기 오싹한 공포가 몸을 훑고 지나갔다.

"여자처럼, 아니면 길 잃은 영혼처럼 울었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그 소리를 가슴에 안고 물러 나오는데, 저도 따라 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분이 거의 다 되었다. 풀이 포장용 짚더미 밑에서 도끼를 파냈고, 쳐들어갈 때 비출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탁자 위에 촛불을 놓았으며,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끈질긴 발소리가 밤의 고요 속에서 여전히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는 곳으로 다가갔다. "지킬,"

어터슨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네를 만나야겠네." 그는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분명히 경고하네.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나는 자네를 만나야겠고 만나고 말겠네." 그가 말을 이었다. "곱게 안 되면 험하게라도, 자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완력으로라도!"

"어터슨," 목소리가 말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게!"

"아, 저건 지킬의 목소리가 아니야. 하이드의 목소리야!" 어터슨이 외쳤다. "문을 부수게, 풀!"

풀이 도끼를 어깨 위로 휘둘렀다. 그 일격에 건물이 흔들렸고, 붉은 모직 천을 씌운 문이 자물쇠와 경첩에 부딪쳐 펄쩍 튀었다. 순전한 짐승의 공포 같은 처참한 비명이 서재 안에서 울려 나왔다. 도끼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문짝이 쩍 소리를 내며 문틀이 튀었다. 네 번 도끼가 내리쳤지만 나무는 단단했고 문짝 장식은 솜씨가 뛰어나서, 다섯 번째에 이르러서야 자물쇠가 터지며 부서진 문이 안쪽 양탄자 위로 쓰러졌다.

쳐들어간 이들은 자기들이 낸 소란과 그 뒤를 이은 고요에 질려 조금 물러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용한 등잔불 아래 서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벽난로에서는 기분 좋은 불이 빛을 내며 타닥거렸고, 주전자는 가느다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서랍 한두 개가 열려 있었고, 업무용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불 가까이에는 차를 마실 채비가 차려져 있었다. 그날 밤 런던에서 가장 조용한 방, 그리고 약품이 가득한 유리장들만 아니라면 가장 평범한 방이라고 누구라도 말했을 것이다.

방 한가운데 몹시 뒤틀린 채 아직도 경련하는 사람의 몸뚱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발끝으로 다가가 그것을 바로 눕혔고, 에드워드 하이드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몸에 비해 너무 큰 옷, 박사의 몸집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힘줄은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였지만 목숨은 이미 완전히 떠나 있었다. 손에 쥔 짓이겨진 약병과

공기 중에 감도는 쓴 아몬드 씨 같은 강한 냄새로, 어터슨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의 시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늦게 왔군." 그가 엄하게 말했다. "구하기에도, 벌하기에도. 하이드는 심판을 받으러 갔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은 자네 주인의 시신을 찾는 것뿐일세."

그 건물의 훨씬 큰 부분은, 아래층을 거의 다 채우고 위에서 빛을 받는 강의실과, 한쪽 끝에 위층을 이루며 안마당을 내다보는 서재가 차지하고 있었다. 복도 하나가 강의실과 뒷골목 쪽 문을 이었고, 서재는 두 번째 계단으로 따로 이 복도와 통했다. 그 밖에 어두운 벽장 몇 개와 널찍한 지하실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곳을 샅샅이 살폈다. 벽장은 모두 비어 있었고 문에서 떨어지는 먼지로 보아 오랫동안 열린 적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한 번 보면 그만이었다. 지하실은 정말로 다 망가진 잡동사니로 가득했는데, 대부분 지킬보다 먼저 이 집에 살던 외과 의사 시절의 것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여러 해 동안 입구를 봉해 두었던 거미줄이 통째로 떨어져 내려, 더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헨리 지킬은 죽은 모습으로도 산 모습으로도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었다.

풀이 복도의 판석을 발로 굴렀다. "여기 묻혀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니면 달아났을지도 모르지." 어터슨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뒷골목 쪽 문을 살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 근처 판석 위에서 벌써 녹이 슨 열쇠가 눈에 띄었다.

"쓴 것 같지가 않군." 변호사가 말했다.

"쓰다니요!" 풀이 되받았다. "부러진 게 안 보이십니까, 나리? 누가 발로 짓밟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래," 어터슨이 말을 이었다. "게다가 부러진 자리도 녹이 슬었어."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일세, 풀." 변호사가 말했다. "서재로 돌아가세."

그들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가, 이따금 두려운 눈길로 시신을 힐끔거리면서 서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탁자 위에는 화학 작업을 한 흔적이 있어서, 어떤 흰 염(鹽)을 저울에 달아 여러 무더기로 나누어 유리 접시에 올려 두었는데, 그 불행한 사내가 실험을 하려다 방해를 받은 것 같았다.

"저게 제가 늘 가져다드리던 바로 그 약입니다." 풀이 말했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 주전자가 깜짝 놀랄 소리를 내며 끓어 넘쳤다.

그 소리에 그들이 벽난로 쪽으로 가 보니, 안락의자가 아늑하게 당겨져 있었고, 앉은 사람의 팔꿈치 바로 곁에 찻그릇이 차려져 있었으며, 잔에는 설탕까지 들어 있었다. 선반에는 책이 몇 권 있었고, 한 권이 찻그릇 옆에 펼쳐져 있었는데, 어터슨이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지킬이 여러 번 크게 존경한다고 말하던 경건한 책이었고, 그 여백에 그의 글씨로 끔찍한 신성 모독의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다음 방을 둘러보던 그들은 큰 체경 앞에 이르렀고, 저도 모르게 오싹해하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거울은 비스듬히 돌려져 있어서, 천장에 어른거리는 장밋빛 불빛과 유리장 앞면을 따라 수백 번 되비치며 반짝이는 불꽃, 그리고 몸을 숙여 들여다보는 그들 자신의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밖에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았다.

"이 거울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겠지요, 나리." 풀이 속삭였다.

"그래도 이 거울 자체보다 더 이상한 건 없을 걸세." 변호사가 같은 목소리로 받았다. "지킬이 무엇 때문에," 그는 그 말에서 흠칫 놀라 말을 멈추었다가, 그 나약함을 이겨 내고 말했다. "지킬이 대체 이걸 무엇에 쓰려고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풀이 말했다.

그다음 그들은 업무용 책상으로 갔다. 책상 위,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 가운데 큰 봉투 하나가 맨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박사의 글씨로 어터슨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자 안에 든 것 몇 가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첫째는 유언장으로, 여섯 달 전에 그가 돌려준 것과 똑같이 별난 조건으로 작성되어 죽을 경우에는 유언장으로, 실종될 경우에는 증여 증서로 쓰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드워드 하이드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서, 변호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며 가브리엘 존 어터슨이라는 이름을 읽었다. 그는 풀을 보았다가 다시 종이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양탄자 위에 길게 뻗은 죽은 악당을 보았다.

"머리가 어지럽군." 그가 말했다. "그자는 요 며칠 내내 이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 나를 좋아할 까닭도 없었지. 자기 이름이 밀려난 걸 보고 길길이 날뛰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 문서를 없애지 않았어."

그가 다음 종이를 집어 들어 보니 박사의 글씨로 쓴 짧은 쪽지였고,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 풀!" 변호사가 외쳤다. "그 친구는 오늘 살아서 여기 있었어. 이렇게 짧은 사이에 처치되었을 리가 없네. 아직 살아 있는 게 틀림없어. 달아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왜 달아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면 이걸 자살이라고 감히 밝혀도 될까? 아, 조심해야 하네. 자칫하면 자네 주인을 무슨 끔찍한 파국에 휘말려 들게 할지도 모르겠어."

"왜 읽어 보지 않으십니까, 나리?" 풀이 물었다.

"두려워서일세." 변호사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느님, 두려워할 까닭이 없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눈앞으로 가져가 다음과 같이 읽었다.

"어터슨에게. 이 글이 자네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나는 사라지고 없을 걸세. 어떤 사정에서일지는 내 통찰력으로는 내다볼 수 없지만, 내

본능과, 이름 붙일 수 없는 내 처지의 모든 사정이 끝이 확실하고 머지않았다고 말해 주네. 그러니 가서, 먼저 래니언이 자네 손에 맡기겠다고 내게 일러 준 그 진술을 읽게. 그리고 더 듣고 싶다면,

"자네의 보잘것없고 불행한 친구

"헨리 지킬의 고백으로 넘어가게."

"세 번째 것이 있었지?" 어터슨이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나리." 풀이 그렇게 말하며 여러 군데를 봉한 꽤 두툼한 꾸러미를 그의 손에 건넸다.

변호사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종이 이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자네 주인이 달아났든 죽었든, 적어도 그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걸세. 지금이 열 시니, 나는 집에 가서 조용히 이 문서들을 읽어야겠네. 하지만 자정 전에 돌아오겠네. 그때 경찰을 부르세."

그들은 강의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고, 어터슨은 다시 한번 홀의 난롯가에 모여 있는 하인들을 뒤에 남겨 두고,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 줄 두 진술을 읽으려고 터벅터벅 사무실로 돌아갔다.

제9장 래니언 박사의 진술

지금으로부터 나흘 전인 1월 9일, 나는 저녁 우편으로 등기 봉투 한 통을 받았는데, 겉봉의 주소는 내 동료이자 학창 시절의 옛 동무인 헨리 지킬의 글씨였다. 나는 이 일에 적잖이 놀랐다. 우리는 결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나는 바로 전날 밤에도 그 사람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까지 했으며, 우리 사이의 어떤 일을 떠올려 보아도 등기까지 부치는 격식을 차릴 까닭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읽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편지는 이러했다.

"18…년 12월 10일.

"래니언에게. 자네는 내 가장 오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일세. 과학 문제를 두고는 이따금 의견이 갈렸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쪽에서는 우리의 우정이 한 번이라도 끊어진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네. 만약 자네가 내게 '지킬, 내 목숨과 내 명예와 내 이성이 자네한테 달려 있네' 하고 말했다면, 나는 자네를 돕기 위해 내 왼손이라도 기꺼이 내놓았을 걸세. 그러지 않았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네. 래니언, 지금 내 목숨과 내 명예와 내 이성이 모두 자네 손에 달려 있네. 오늘 밤 자네가 나를 저버리면 나는 끝장일세. 이렇게 서두를 꺼냈으니 내가 무슨 떳떳하지 못한 부탁이라도 하려는 줄로 여길지 모르겠군. 직접 판단해 주게.

"오늘 밤 다른 약속은 모두 미뤄 주게. 그래, 설령 어느 황제의 머리맡으로 불려 가게 되었더라도 말일세. 자네 마차가 마침 문 앞에 대기하고 있지 않다면 삯마차를 잡아타고, 이 편지를 손에 들고 살펴

가며 곧장 내 집으로 가 주게. 내 집사 풀에게 분부해 두었으니, 그가 자물쇠장이를 데리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런 다음 내 서재 문을 억지로 열게. 그리고 자네 혼자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유리문 달린 장(E라고 적혀 있네)을 열되, 잠겨 있으면 자물쇠를 부수고, 위에서 넷째 서랍, 같은 말이지만 아래에서 셋째 서랍을 안에 든 것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통째 빼내 주게. 마음이 극도로 괴로운 탓에 내가 자네를 엉뚱한 데로 보내지나 않을까 병적으로 두렵네. 하지만 내가 잘못 일렀더라도 안에 든 것으로 맞는 서랍을 알아볼 수 있을 걸세. 가루약 몇 봉지와 약병 하나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네. 부디 이 서랍을 있는 그대로 캐번디시 스퀘어로 가지고 돌아가 주게.

"이것이 부탁의 첫 부분이고, 이제 둘째 부분일세. 이 편지를 받자마자 떠난다면 자정이 되기 훨씬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걸세. 그래도 그만큼 여유를 두려는 것은, 막을 수도 내다볼 수도 없는 어떤 장애가 생길까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남은 일을 하기에는 자네 하인들이 잠자리에 든 시각이 더 낫기 때문일세. 그러니 자정에 자네 진찰실에 혼자 있다가, 내 이름을 대고 찾아오는 사람을 자네 손으로 직접 집 안에 들이고, 내 서재에서 가져온 그 서랍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그러면 자네는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내 감사를 온전히 받게 될 걸세. 자네가 굳이 설명을 듣겠다면, 그로부터 5분 뒤에는 이 모든 준비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아무리 엉뚱해 보이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면, 내 죽음이나 내 이성의 파멸을 자네 양심에 짊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도 말일세.

"자네가 이 호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고 손이 떨리네. 이 시각 낯선 곳에서, 어떤 상상으로도 부풀릴 수 없을 만큼 시커먼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나를 생각해 주게. 그러면서도 나는, 자네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 괴로움이 다 끝난 옛이야기처럼 굴러 사라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래니언. 그리고 자네의 친구를 구해 주게.

"자네의 친구

"H. J.

"추신. 이 편지를 이미 봉하고 난 뒤에 새로운 두려움이 내 영혼을 덮쳤네. 우체국이 나를 저버려서 이 편지가 내일 아침에야 자네 손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래니언, 낮 동안 자네에게 가장 편한 때에 내 심부름을 해 주고, 다시 한번 자정에 내 심부름꾼을 기다려 주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네.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자네는 헨리 지킬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내 동료가 미쳤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이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가 부탁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뒤죽박죽인 글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할 처지가 못 되었고, 이렇게 쓰인 호소를 무시했다가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 이륜 삯마차를 잡아타고 곧장 지킬의 집으로 갔다. 집사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도 나와 같은 우편으로 지시가 담긴 등기 편지를 받고 곧바로 자물쇠장이와 목수를 불러 두었다.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는 사이에 장인들이 왔고, 우리는 다 함께 옛 덴먼 박사의 외과 강의실로 갔는데, (자네도 틀림없이 알겠지만) 지킬의 개인 서재로 들어가기에는 그쪽이 가장 편하다. 문은 아주 튼튼했고 자물쇠도 훌륭해서, 목수는 힘으로 열자면 무척 애를 먹고 많이 부숴야 할 거라고 털어놓았고, 자물쇠장이는 거의 절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자물쇠장이는 솜씨 좋은 사내였고, 두 시간을 매달린 끝에 문이 열렸다.

E라고 적힌 장은 잠겨 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서랍을 꺼내 짚을 채우고 보자기로 묶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캐번디시 스퀘어로 돌아왔다.

여기서 나는 서랍 안에 든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루약은 꽤 깔끔하게 싸여 있었지만 약제사가 조제한 것만큼 정교하지는 않아서, 지킬이 손수 만든 것이 분명했고, 봉지 하나를 펴 보니 흰 결정으로 된 단순한 염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다. 다음으로 눈길을 돌린 약병에는 핏빛 액체가 절반쯤 들어 있었는데, 냄새가 몹시 코를 찔렀고 인과 어떤 휘발성 에테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성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공책은 흔한 연습장으로, 날짜가 죽 적혀 있을 뿐 별다른 것이 없었다. 날짜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있었지만, 기록이 거의 한 해 전에 아주 갑자기 끊겨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여기저기 날짜 옆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대개는 한 낱말뿐이어서, 수백 개의 기록 가운데 「이중」 이라는 말이 여섯 번쯤 나왔고, 목록 맨 처음 무렵에 한 번은 느낌표를 여러 개 달고 「완전한 실패!!!」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호기심을 돋우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은 별로 없었다. 무슨 팅크가 든 약병 하나와 무슨 염 한 봉지가 있고, (지킬의 수많은 연구가 그렇듯이) 실제로 쓸모 있는 결실에는 이르지 못한 일련의 실험 기록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물건들이 내 집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 경박한 동료의 명예나 정신이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심부름꾼이 한 곳에 갈 수 있다면 다른 곳에는 왜 못 간단 말인가? 무슨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 이 신사를 내가 남몰래 맞아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뇌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고, 그래서 하인들은 잠자리에 들게 했지만 여차하면 내 몸을 지킬 태세를 갖추고 있으려고 낡은 연발 권총에 탄알을 재어 두었다.

런던 하늘에 열두 시 종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에, 문고리가 아주 살며시 문을 두드렸다. 나는 직접 나가 보았고, 현관 기둥에 바짝 붙어

웅크리고 있는 작은 사내를 보았다.

"지킬 박사가 보내서 오셨소?" 내가 물었다.

그는 어색한 몸짓으로 그렇다는 뜻을 전했다. 들어오라고 하자 그는 광장의 어둠 속을 뒤돌아 살피듯 한 번 쳐다보고 나서야 내 말을 따랐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순경 하나가 각등을 켠 채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내 손님은 흠칫 놀라 더 서두르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내게는 불쾌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를 따라 진찰실의 밝은 불빛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무기에 손을 대고 있었다. 여기서 마침내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몸집이 작았고, 그 밖에도 나는 그 얼굴의 충격적인 표정에, 대단한 근육의 활력과 겉보기에 몹시 허약한 체질이 기묘하게 한 몸에 어울려 있다는 데에,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이상한 주관적 동요에 놀랐다. 이 동요는 오한이 막 시작될 때와 조금 비슷했고, 맥박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때 나는 그것을 어떤 남다른 개인적 혐오 탓으로 돌리고, 그 증상이 그토록 날카롭다는 데 놀라기만 했지만, 그 뒤로 나는 그 원인이 인간의 본성 속 훨씬 깊은 곳에 있으며, 증오라는 원리보다 더 고귀한 어떤 돌쩌귀에 달려 있다고 믿을 만한 까닭을 얻게 되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선 첫 순간부터, 역겨운 호기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불러일으켰다) 보통 사람이라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차림을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의 옷은 고급스럽고 점잖은 천으로 지었는데도 모든 치수가 그에게 터무니없이 커서, 바지는 다리에 헐렁하게 걸려 땅에 끌리지 않게 접어 올려져 있었고, 윗옷의 허리는 엉덩이 아래로 내려와 있었으며, 깃은 어깨 위로 넓게 벌어져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우스운 차림은 결코 나를 웃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마주 선 그 존재의 본질 자체에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잘못 태어난 것, 사람을 움켜쥐고 놀라게 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므로, 이 새로운 어울리지 않음은 그것과 꼭 들어맞아 그것을 더욱 굳혀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사내의 본성과 성격에 대한 내 관심에, 그의 출신과 삶과 재산과 세상에서 차지한 지위에 대한 호기심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 꽤 긴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 관찰은 모두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내 손님은 정말이지 어두운 흥분으로 불타고 있었다.

"가져왔소?" 그가 외쳤다. "가져왔소?" 그러고는 참을성 없는 마음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내 팔에 손까지 얹고 나를 흔들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핏줄을 따라 얼음 같은 통증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밀어냈다. "자, 선생," 내가 말했다. "나는 아직 선생과 인사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걸 잊으신 모양이오. 앉으시지요." 그리고 나는 늦은 시각과, 내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과, 손님에게 느끼는 공포가 허락하는 한 평소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될 수 있는 대로 그럴듯하게 흉내 내면서, 본을 보이듯 먼저 내 늘 앉는 자리에 앉았다.

"실례했소, 래니언 박사." 그가 꽤 공손하게 대답했다. "말씀이 지당하오. 내가 조급한 나머지 예의를 그만 뒷전으로 내팽개쳤구려. 나는 박사의 동료인 헨리 지킬 박사의 부탁을 받고 꽤 중요한 일로 여기 왔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손을 목에 갖다 대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가 다가오는 발작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내가 알기로는, 서랍 하나를……"

그러나 여기서 나는 손님의 애타는 마음이 가엾었고, 어쩌면 점점 커지는 내 호기심도 조금은 가엾었다.

"저기 있소, 선생." 나는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랍은 탁자 뒤 바닥에 아직 보자기를 씌운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서랍으로 달려들었다가 멈칫하더니, 손을 가슴에 얹었다. 턱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얼굴이 보기에 너무도 끔찍해서, 나는 그의 목숨과 이성이 다 걱정스러웠다.

"진정하시오." 내가 말했다.

그는 내게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절망 끝에 마음을 정한 듯 보자기를 확 걷어 냈다. 안에 든 것을 보자 그는 크나큰 안도의 흐느낌을 한 번 크게 터뜨렸고, 나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벌써 꽤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금 있는 잔이 있소?"

나는 조금 애를 써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달라는 것을 건네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는, 붉은 팅크를 몇 방울 달아 따르고 가루약 한 봉지를 넣었다. 처음에 불그스름하던 혼합액은 결정이 녹아 가는 데 따라 빛깔이 밝아지며 소리를 내어 거품이 일고 작은 김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끓어오르던 것이 멎고, 혼합액은 짙은 자줏빛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더 천천히 바래 묽은 초록빛이 되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던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돌아서서 무엇을 살피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그가 말했다. "남은 일을 매듭지읍시다. 현명하게 처신하겠소? 내 말을 따르겠소? 내가 이 잔을 손에 들고 더 이상 말없이 당신 집을 떠나게 내버려 두겠소? 아니면 호기심의 탐욕이 당신을 너무 단단히 휘어잡고 있소?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정하는 대로 될 테니까. 당신이 정하는 대로, 당신은 전과 똑같이 남게 될 거요. 더 부유해지지도 더 현명해지지도 않은 채로 말이오. 죽을 고비에 놓인 사람을 도왔다는 느낌을 일종의 영혼의 재산으로 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고르는 편을 더 좋아한다면, 새로운 앎의 영역과 명성과 권력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여기, 이 방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열릴 거요. 그리고 당신의 눈은 사탄의 불신마저 흔들어 놓을 이적에 멀어 버릴 거요."

"선생," 나는 전혀 지니지 못한 침착함을 지닌 척하며 말했다. "선생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구려. 내가 그 말을 그리 믿는 마음 없이 듣는다 해도 놀라지는 않으시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영문 모를 부탁을 들어주는 길로 너무 멀리 왔으니, 끝을 보기 전에 멈출 수는 없소."

"좋소." 손님이 대답했다. "래니언, 당신의 서약을 기억하시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직업의 봉인 아래 있소. 그리고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더없이 편협하고 물질적인 견해에 묶여 있던 당신, 초월적 의학의 효험을 부정해 온 당신, 당신보다 나은 이들을 비웃어 온 당신, 보시오!"

그는 잔을 입술에 대고 단숨에 들이켰다. 이어서 비명이 터졌고, 그는 비틀거리고 휘청이며 탁자를 움켜잡고 매달린 채 핏발 선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부풀어 오르는 듯했고, 얼굴이 갑자기 시커메지더니 이목구비가 녹아내리며 바뀌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펄쩍 물러나, 두 팔을 들어 그 이적을 막으려 했고, 마음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오, 하느님!"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오, 하느님!" 몇 번이고 그렇게 질렀다. 내 눈앞에, 창백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반쯤 넋이 나간 채, 죽음에서 되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거기 헨리 지킬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한 시간 동안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차마 종이에 옮길 마음이 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보았고 내가 들은 것을

들었으며, 내 영혼은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 그런데도 그 광경이 눈앞에서 희미해진 지금, 나는 그것을 믿느냐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지 못한다. 내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잠은 나를 떠났고, 더없이 끔찍한 공포가 밤낮없이 어느 때나 내 곁에 앉아 있다. 나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도 나는 믿지 못한 채로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이 참회의 눈물까지 흘리며 내게 드러내 보인 도덕적 타락은, 기억 속에서조차 소스라치는 공포 없이는 곱씹을 수가 없다. 어터슨, 한 가지만 말하겠네. 그리고 그것은 (자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넉넉하고도 남을 걸세. 그날 밤 내 집에 기어든 그 존재는, 지킬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였고, 커루를 죽인 살인자로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쫓기고 있는 자였다.

해스티 래니언

제10장 헨리 지킬의 사건 전말 진술

나는 18…년에 큰 재산을 물려받을 몸으로 태어났고, 게다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으며, 천성이 부지런하고 동료 인간들 가운데 지혜롭고 선한 이들의 존경을 받기를 좋아했으니, 짐작할 수 있듯이 명예롭고 빼어난 앞날을 빠짐없이 보장받은 셈이었다. 실제로 내 결점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어딘가 참을성 없이 들뜨기 잘하는 기질이었는데, 그런 기질은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해 주었지만, 나로서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사람들 앞에서 남다르게 엄숙한 얼굴을 하고 다니려는 내 오만한 욕망과 화해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내 쾌락을 숨기게 되었고, 생각이 무르익을 나이가 되어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에서 내가 걸어온 길과 차지한 자리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깊이 갈라진 이중의 삶에 몸을 던진 뒤였다.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탈선이라면 오히려 떠벌리고 다녔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세워 둔 높은 이상 때문에 거의 병적인 수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감추었다. 그러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내 결점이 유난히 타락해서라기보다 내 포부가 그토록 까다로웠기 때문이었고, 그 포부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도랑을 파서,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나누면서 또한 엮어 이루는 선과 악의 두 영역을 내 안에서 갈라놓았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종교의 뿌리에 놓여 있으며 괴로움이 가장 풍성하게 솟아나는 샘 가운데 하나인 그 가혹한 삶의 법칙을 깊이, 그리고 끈질기게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철저하게 두 얼굴로 살았지만,

나는 결코 위선자가 아니었다. 내 두 쪽은 모두 죽을 만큼 진지했다. 자제를 벗어던지고 수치 속으로 뛰어들 때의 나도, 대낮에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식을 넓히거나 슬픔과 고통을 덜어 주려고 애쓸 때의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로지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을 향하던 내 과학 연구의 방향이, 내 지체들 사이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이 싸움에 대한 의식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강하게 비추었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그리고 내 지성의 두 쪽, 곧 도덕과 지식 양쪽에서 그 진리에 꾸준히 다가갔고, 그 진리를 일부나마 발견한 탓에 이토록 무서운 난파를 겪을 운명이 되었다. 그 진리란 이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둘이다. 내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앎이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뒤를 따를 것이고, 다른 이들이 같은 길에서 나를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감히 짐작하건대, 인간은 마침내 갖가지로 다르고 서로 어울리지 않으며 저마다 독립한 주민들이 모여 이룬 하나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내 삶의 성격상 오직 한 방향으로만, 어김없이 나아갔다. 인간의 철저하고 근원적인 이중성을 알아보게 된 것은 도덕의 측면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였다. 내 의식의 마당에서 다투는 두 본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뿌리부터 그 둘 다였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일찍부터, 내 과학적 발견이 그런 기적의 맨 가능성조차 내비치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는 이 요소들을 갈라놓는다는 생각에 사랑하는 백일몽처럼 즐겨 잠기곤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저마다 따로 다른 개체 속에 깃들 수만 있다면 삶은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불의한 자는 더 올곧은 쌍둥이 형제의 포부와 뉘우침에서 풀려나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선한 일을 하면서, 더는 이 낯선 악의 손에 치욕과

참회를 겪지 않고, 위로 오르는 제 길을 굳세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나뭇단들이 이렇게 한데 묶여 있다는 것, 의식이라는 고통스러운 자궁 속에서 이 양극의 쌍둥이가 끊임없이 다투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류의 저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떼어 놓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앞서 말했듯이 실험대 위에서 이 문제를 비추는 곁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이 겉보기에 그토록 단단한 몸이 실은 떨리듯 덧없고 안개처럼 스러지기 쉬운 것임을, 지금까지 누가 말한 것보다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물질들에 그 살의 옷을 흔들어 젖혀 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람이 천막의 휘장을 펄럭여 젖히듯이 말이다. 두 가지 마땅한 까닭에서, 나는 내 고백의 이 과학적 갈래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첫째, 우리 삶의 운명과 짐은 영원히 인간의 어깨에 묶여 있으며, 그것을 벗어던지려 하면 더 낯설고 더 끔찍한 무게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아! 내 이야기가 너무도 뚜렷이 보여 주겠지만, 내 발견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만 말해 두면 충분하다. 나는 내 정신을 이루는 어떤 힘들이 내뿜는 기운과 광채 속에서 내 타고난 몸을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이 힘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대신 두 번째 모습과 얼굴을 들어앉힐 약을 조제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 모습과 얼굴은 내 영혼 속 더 낮은 요소들을 드러내고 그 낙인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나다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이론을 실제로 시험해 보기까지 오래 망설였다.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성채 자체를 그토록 강력하게 지배하고 뒤흔드는 약이라면, 털끝만큼만 지나치게 먹어도, 또는 먹는 순간에 조금만 때가 맞지 않아도, 내가 그것으로

바꾸려던 그 형체 없는 성막을 송두리째 지워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기이하고 심오한 발견의 유혹이 마침내 두려움이 속삭이는 경고를 이겨 냈다. 나는 오래전에 팅크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실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성분임을 알고 있던 어떤 특정한 염을 약품 도매상에서 곧바로 많이 사들였다. 그리고 어느 저주받은 밤늦게 그 성분들을 섞어, 그것들이 잔 속에서 함께 끓어오르며 김을 뿜는 것을 지켜보다가, 끓어오르던 것이 가라앉자 용기를 불끈 북돋워 그 물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더없이 혹독한 고통이 뒤따랐다. 뼈가 갈리는 듯했고, 죽을 것 같은 구역질이 났으며, 태어나는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그보다 더할 수 없을 영혼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다 이 고통이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고, 나는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다. 내 감각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새롭고, 그 새로움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몸이 더 젊어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진 느낌이었다. 속으로는 머리를 어지럽히는 무모함, 물방아 도랑처럼 내 상상 속을 내달리는 어지러운 관능의 영상들, 의무의 끈이 풀려 버린 느낌, 알 수 없지만 결코 순결하지는 않은 영혼의 자유를 느꼈다. 이 새 삶의 첫 숨결에서 나는 내가 더 사악해졌음을, 열 배는 더 사악해졌으며 내 본래의 악에 노예로 팔려 갔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생각은 포도주처럼 나를 북돋우고 기쁘게 했다. 나는 이 감각의 싱싱함에 환호하며 두 손을 쭉 뻗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내 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무렵 내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거울은 나중에, 바로 이 변신을 위해 들여놓은 것이다. 그러나 밤은 깊어 거의 새벽에 이르러 있었고, 새벽은 아직 캄캄했지만 이제 곧 낮을 잉태할 만큼 무르익어 있었으며, 집안 사람들은 가장 깊은 잠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희망과 승리감에 들뜬 채 새 모습으로 내 침실까지 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마당을 가로지를 때, 별자리들은 잠들지 않고 지켜 온 그 눈길에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부류의 첫 피조물인 나를 놀라움에 차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집 안의 낯선 사람이 되어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갔고, 내 방에 이르러 처음으로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이론으로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하다고 짐작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그 모습을 찍어 내는 힘을 옮겨 준 내 본성의 악한 쪽은, 내가 방금 왕좌에서 끌어내린 선한 쪽보다 덜 튼튼하고 덜 자라 있었다. 게다가 결국 열에 아홉은 노력과 덕과 자제의 삶이었던 내 삶의 과정에서, 그쪽은 훨씬 덜 쓰였고 훨씬 덜 닳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에드워드 하이드가 헨리 지킬보다 훨씬 작고 가냘프고 젊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얼굴에 선이 빛났듯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악이 크고 똑똑하게 쓰여 있었다. 게다가 악은 (나는 여전히 그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쪽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몸에 기형과 쇠락의 자국을 남겨 놓았다. 그런데도 거울 속의 그 추한 우상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아무런 혐오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움에 가슴이 뛰었다. 이것 역시 나였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다워 보였다. 내 눈에 그것은 정신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지니고 있었고, 지금껏 내 것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했던 불완전하고 갈라진 얼굴보다 더 분명하고 한결같아 보였다. 그 점에서 나는 틀림없이 옳았다. 내가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면 누구도 처음에는 눈에 띄게 몸서리치지 않고는 내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보아 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는데, 인류의 대열 가운데 오직 에드워드 하이드만이 순수한 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앞에서 잠깐 머물렀을 뿐이었다. 두 번째의, 결정적인 실험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돌이킬 수 없이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닌 집에서 날이 밝기 전에 달아나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서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잔을 마련해 마셨고, 다시 한번 해체의 고통을 겪었으며, 다시 한번 헨리 지킬의 성격과 키와 얼굴로 정신을 차렸다.

그날 밤 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내가 좀 더 고결한 마음으로 내 발견에 다가갔더라면, 너그럽거나 경건한 포부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실험을 무릅썼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고, 나는 이 죽음과 탄생의 고통에서 악마가 아니라 천사로 걸어 나왔을 것이다. 약에는 가려내는 작용이 없었다. 그것은 악마의 것도 신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내 기질의 감옥 문을 흔들었을 뿐이었고, 빌립보의 갇힌 자들처럼 안에 서 있던 것이 뛰쳐나왔다. 그때 내 덕은 잠들어 있었다. 야망 때문에 깨어 있던 내 악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재빨리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렇게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 에드워드 하이드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 모습과 함께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는 온전히 악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예전의 헨리 지킬, 바로잡고 나아지게 하리라는 희망을 이미 버린 그 어울리지 않는 혼합물이었다. 그러니 움직임은 온통 더 나쁜 쪽을 향해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학문하는 삶의 메마름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 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이따금 흥겹게 놀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내 쾌락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품위 없는 것이었는데, 나는 널리 알려지고 높이 존경받는 사람일 뿐 아니라 노년에 접어들어 가고 있었으므로, 내 삶의 이 앞뒤 안 맞음은 날이 갈수록 더 달갑지 않게 되었다. 내 새 힘이 나를 유혹하다가 마침내 노예로 만든 것은 바로 이쪽에서였다. 잔을 마시기만 하면 나는 이름난 교수의 몸을 단번에 벗어던지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듯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을 걸칠 수 있었다. 나는 그 생각에 미소 지었다. 그때는 그것이 우스운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나는 더없이 공들여 준비를 했다. 경찰이 하이드를 쫓아 찾아낸 소호의 그 집을 얻어 가구를 들였고, 입이 무겁고 거리낌이 없는 줄 내가 잘 아는 여자를 가정부로 들였다. 한편으로는 하인들에게, 하이드 씨라는 사람이(나는 그의 생김새를 일러 주었다) 광장의 내 집에서 마음대로 드나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라고 알렸다. 그리고 탈이 없도록 나는 두 번째 성격의 모습으로 직접 집을 찾아가 낯익은 얼굴이 되기까지 했다. 그다음에는 자네가 그토록 반대한 그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래야 지킬 박사의 몸으로 있다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돈 한 푼 잃지 않고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방으로 단단히 방비했다고 여긴 나는, 내 처지가 누리는 기이한 면제 특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자기 몸과 평판은 안전한 곳에 숨겨 둔 채, 범죄를 대신 저지를 자객을 사곤 했다. 그런데 자기 쾌락을 위해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상냥한 체면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걷다가, 한순간에 학생처럼 이 빌린 옷을 벗어 버리고 자유의 바다로 곤두박질쳐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도 내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무엇으로도 꿰뚫을 수 없는 망토를 두른 나에게는 안전이 완벽했다. 생각해 보라. 나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실험실 문으로 달아나기만 하면, 언제나 준비해 둔 약을 섞어 삼킬 1, 2초만 주어지면, 에드워드 하이드는 무슨 짓을 했든 거울에 서린 입김 자국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신 거기, 조용히 집에서 서재의 한밤 등잔 심지를 다듬으며 의심 따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 헨리 지킬이 있을 것이었다.

내가 변장을 하고 서둘러 찾아다닌 쾌락은, 앞서 말했듯이 품위가 없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쓰지 않으련다. 그러나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에서 그 쾌락은 곧 괴물 같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나는 대리로 저지른 내 타락에 일종의 경이감마저 느끼곤 했다. 내 영혼에서 불러내어 혼자 내보내 제 좋을 대로 하게 한 이 사역마는 본디 악의에 차고 사악한 존재였다.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았다. 그는 남이 어떤 고통을 받든 거기서 짐승 같은 탐욕으로 쾌락을 들이켰고, 돌로 만든 사람처럼 무자비했다. 헨리 지킬은 이따금 에드워드 하이드가 저지른 짓 앞에서 질겁했다. 그러나 그 처지는 보통의 법칙 밖에 있었고, 양심의 손아귀를 슬그머니 느슨하게 했다.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하이드, 오직 하이드뿐이었다. 지킬은 더 나빠지지 않았다. 그는 겉보기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자기의 좋은 성품으로 다시 깨어났고, 할 수만 있으면 하이드가 저지른 악을 서둘러 되돌리려 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그의 양심은 잠들었다.

이렇게 내가 눈감아 준 수치스러운 짓들을(지금도 나는 내가 그것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히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다만 내 벌이 다가오는 동안 나타난 경고와 단계들을 짚어 두려 할 뿐이다. 한 번 사고가 있었지만,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므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아이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내게 분노했는데, 나는 일전에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친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의사와 아이 식구들이 그에게 합세했고,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다. 결국 그들의 너무도 정당한 분노를 달래려고, 에드워드 하이드는 그들을 그 문까지 데려가 헨리 지킬의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로 돈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 위험은 에드워드 하이드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은행에 계좌를 열어 앞으로는 쉽게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글씨를 뒤로 기울여 내 분신에게 서명까지 마련해 주었을 때, 나는 운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다.

댄버스 경이 살해되기 두 달쯤 전, 나는 내 모험 가운데 하나를 하러 나갔다가 늦은 시각에 돌아왔고, 이튿날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용없었다. 광장의 내 방에 놓인 점잖은 가구와 높다란 방의 생김새를 보아도 소용없었다. 침대 커튼의 무늬와 마호가니 침대 틀의 모양을 알아보아도 소용없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계속 우겨 댔다.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깨어난 듯 보이는 곳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으로 잠자곤 하던 소호의 작은 방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심리학자다운 버릇대로 이 착각의 요소들을 느긋하게 따져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기분 좋은 아침 선잠 속으로 다시 빠져들곤 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신이 좀 더 또렷해진 어느 순간, 내 눈길이 내 손에 떨어졌다. 그런데 헨리 지킬의 손은 (자네도 자주 말했듯이) 생김새와 크기가 의사다웠다. 크고, 단단하고, 희고, 보기 좋은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 런던 한복판 아침의 누런 빛 속에서 꽤 또렷이 보이는, 이불 위에 반쯤 쥔 채 놓인 그 손은 여위고, 힘줄이 불거지고, 마디가 툭툭 튀어나왔으며, 거무스름하게 창백했고, 검은 털이 수북하게 덮여 있었다.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놀라움에 빠져 30초 가까이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러다 심벌즈가 부딪치는 소리처럼 갑작스럽고 놀랍게 내 가슴에서 공포가 깨어났고, 나는 침대에서 튀어 일어나 거울로 달려갔다.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내 피는 무언가 더없이 묽고 차가운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렇다, 나는 헨리 지킬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에드워드 하이드로 깨어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나는 스스로 물었다. 그리고 다시 공포에 펄쩍 뛰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하나? 아침도 한참 지나 있었다. 하인들은 일어나 있었다. 내 약은 모두 서재에 있었는데, 내가 겁에 질려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서재까지는 계단 두 층을 내려가 뒤쪽 통로를 지나고, 트인 안마당을 건너고, 해부학 강의실을 지나야 하는 먼 길이었다. 얼굴이야 가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키가 달라진 것을 감출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때 압도하는 달콤한 안도감과 함께, 하인들이 이미 내 두 번째 자아가 드나드는 데 익숙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곧 평소 내 치수대로 지은 옷을 되는대로 걸쳐 입었다. 그리고 곧 집 안을 지나갔는데, 브래드쇼가 그런 시각에 그렇게 이상한 차림을 한 하이드 씨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러섰다. 그리고 10분 뒤, 지킬 박사는 제 모습으로 돌아와 어두운 얼굴로 아침을 먹는 시늉을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맛이 있을 리 없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이 이렇게 뒤집힌 일은, 바빌론 왕궁의 벽에 나타난 손가락처럼 나에 대한 심판의 글자를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내 이중 존재가 낳을 결과와 그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밖으로 내던질 힘을 가진 내 안의 그 부분은 요즘 들어 많이 단련되고 많이 자라 있었다. 요즘 들어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이 키가 커진 것 같았고,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면) 더 넉넉한 피의 물결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오래 이어지면 내 본성의 균형이 영영 무너지고, 내 뜻대로 바뀌는 힘을 잃고, 에드워드 하이드의 성격이 돌이킬 수 없이 내 것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위험을 엿보기 시작했다. 약의 힘이 늘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내 경력의 아주 초기에 한 번은 약이 완전히 듣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한 번 넘게 양을 두 배로 늘려야 했고, 한 번은 목숨을 잃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세 배로 늘려야 했다. 지금까지 내

만족에 드리운 그림자라고는 이렇게 드물게 찾아오는 불확실함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날 아침의 사고에 비추어 보니, 처음에는 지킬의 몸을 벗어던지는 것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 어려움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반대쪽으로 옮겨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나는 본래의 더 나은 나를 붙잡은 손을 천천히 놓치고 있었고, 두 번째의 더 나쁜 나와 천천히 한 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나는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느꼈다. 내 두 본성은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능력은 모두 몹시 고르지 않게 나뉘어 있었다. (두 가지가 섞여 이루어진) 지킬은 때로는 더없이 예민하게 두려워하며, 때로는 탐욕스럽게 즐기며, 하이드의 쾌락과 모험을 계획하고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하이드는 지킬에게 무관심했고, 기억한다 해도 산적이 추격을 피해 숨는 동굴을 기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지킬은 아버지보다 더한 관심을 가졌고, 하이드는 아들보다 더한 무관심을 가졌다. 지킬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남몰래 즐겨 왔고 요즘 들어서는 마음껏 부추기기 시작한 그 욕망들에 대해 죽는다는 뜻이었다. 하이드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은, 수많은 관심과 포부에 대해 죽고, 단번에 영원히 경멸받고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다. 이 거래는 공평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울에는 또 하나 따져야 할 것이 올라 있었다. 지킬은 금욕의 불길 속에서 쓰라리게 괴로워하겠지만, 하이드는 자기가 잃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할 것이었다. 내 처지는 기이했지만, 이 논쟁의 조건은 인간만큼이나 오래되고 흔한 것이다. 유혹받아 떨고 있는 죄인이라면 누구나 대체로 같은 꾐과 두려움 앞에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리고 내 동료 인간들 대다수가 그렇듯 나 역시 더 나은 쪽을 골랐고, 그것을 지킬 힘이 모자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 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정직한 희망을 품고 사는, 나이 들고 불만에 찬 박사를 택했다. 그리고 하이드로 변장한 채 누려 온 자유와, 비교적 젊은 나이와, 가벼운 걸음과, 솟구치는 충동과, 은밀한 쾌락에 단호히 작별을 고했다. 어쩌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단서를 남겨 둔 채 이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다. 소호의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아직 서재에 준비해 둔 에드워드 하이드의 옷을 없애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달 동안은 내 결심을 지켰다. 두 달 동안 나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르지 못한 엄격한 삶을 살았고, 양심이 나를 칭찬해 주는 보상을 누렸다. 그러나 시간은 마침내 내 두려움의 생생함을 지워 가기 시작했고, 양심의 칭찬은 당연한 것이 되어 갔으며, 나는 자유를 찾아 몸부림치는 하이드처럼 진통과 갈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덕적으로 나약해진 한 시간에, 나는 다시 한번 변신의 약을 섞어 삼켰다.

술꾼이 제 악덕을 두고 스스로 따져 볼 때, 짐승 같은 육체의 무감각 때문에 자기가 무릅쓰는 위험에 오백 번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내 처지를 오래 따져 보았지만, 에드워드 하이드의 두드러진 특성인 완전한 도덕적 무감각과 악을 향한 분별없는 태세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았다. 오랫동안 우리에 갇혀 있던 내 악마는 으르렁거리며 뛰쳐나왔다. 약을 마실 때부터 나는 더 고삐 풀리고 더 사나운 악의 성향을 느꼈다. 그 불행한 희생자의 정중한 말을 들으며 내 영혼에 그 조급함의 폭풍이 인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하느님 앞에 밝혀 둔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토록 하찮은 도발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며, 나는 병든 아이가 장난감을 부술 때보다 더 이성적인 마음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운데 가장 나쁜 자도 유혹 사이에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는 균형의 본능을 모두 스스로 벗어던져 버렸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운 유혹이라도 유혹을 받기만 하면 곧 넘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지옥의 영이 깨어나 날뛰었다. 나는 미칠 듯한 환희에 차서 저항하지 않는 몸을 마구 짓이겼고, 한 대 한 대 내리칠 때마다 쾌락을 맛보았다. 그러다 피로가 밀려오기 시작하고서야, 광란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 갑자기 싸늘한 공포의 전율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안개가 걷혔다. 나는 내 목숨이 이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고, 의기양양하면서도 떨면서, 악을 향한 욕망은 채워지고 더욱 부추겨진 채, 삶을 향한 애착은 팽팽히 조일 대로 조여진 채, 이 난행의 현장에서 달아났다. 나는 소호의 집으로 달려가 (만에 하나를 대비해 두 겹으로 확실히 하려고) 서류들을 없앴다. 그리고 거기서 등불 밝힌 거리를 지나 길을 나섰다. 똑같이 갈라진 황홀경에 빠져, 내 범죄를 흐뭇하게 곱씹으며, 들뜬 머리로 앞으로 저지를 다른 범죄들을 꾸미면서도, 여전히 서두르며 여전히 뒤에서 복수자의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나 귀를 기울였다. 하이드는 약을 섞으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것을 마시며 죽은 사람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변신의 고통이 아직 그를 다 찢어 놓지도 않았을 때, 헨리 지킬은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깍지 낀 두 손을 하느님께 들어 올렸다. 방종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나는 내 삶을 하나의 전체로 보았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버리고 애써 온 직업의 나날을 거쳐, 몇 번이고 똑같이 실감 나지 않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의 저주받은 공포에 다시 이르기까지 그 삶을 따라갔다. 나는 소리 내어 비명을 지를 수도 있었다. 나는 눈물과 기도로 내 기억이 떼 지어 나를 덮쳐 오는 그 끔찍한 영상과 소리들을 짓눌러 없애려고 애썼다. 그런데도 기도와 기도 사이로 내 죄악의 추한 얼굴이 내 영혼을

노려보았다. 이 회한의 날카로움이 사그라지기 시작하자, 그 자리를 기쁨이 차지했다. 내 행실의 문제는 풀린 것이다. 이제부터 하이드는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제 내 존재의 더 나은 쪽에 갇혀 있었다. 아,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얼마나 기꺼이 겸손하게 자연스러운 삶의 제약을 다시 끌어안았던가! 그토록 자주 드나들던 그 문을 얼마나 진심으로 단념하며 잠그고, 그 열쇠를 발꿈치로 짓밟아 부러뜨렸던가!

이튿날 그 살인이 그냥 묻히지 않았다는 소식, 하이드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소식, 그리고 피해자가 세상의 존경을 크게 받는 사람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범죄였을 뿐 아니라 비극적인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되어 기뻤던 것 같다. 내 더 나은 충동이 이렇게 교수대의 공포로 떠받쳐지고 지켜지게 된 것이 기뻤던 것 같다. 이제 지킬은 내 도피성이었다. 하이드가 한순간이라도 얼굴을 내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들려 올라갈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바르게 처신해서 지난날을 속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간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지난해 마지막 몇 달 동안 내가 고통을 덜어 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는 자네도 안다. 남을 위해 많은 일이 이루어졌고, 나 자신에게도 나날이 조용히, 거의 행복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자네도 안다. 이 자비롭고 순결한 삶에 싫증이 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그 삶을 더 온전히 즐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갈라진 뜻이라는 저주를 받고 있었다. 참회의 첫 날카로움이 무디어지자, 그토록 오래 제멋대로 놀다가 얼마 전에야 사슬에 묶인 내 낮은 쪽이 방종을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이드를 되살리려는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만 떠올려도 나는 미칠

듯이 놀랐을 것이다.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양심을 희롱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은 내 자신의 몸으로서였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유혹의 공격 앞에 무너진 것도 흔한 남모르는 죄인으로서였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큰 그릇도 마침내는 가득 찬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내 악에 몸을 낮춘 일이 끝내 내 영혼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타락은 내가 발견을 하기 전의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화창하고 맑은 1월의 어느 날이었다. 서리가 녹은 발밑은 질척했지만 머리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리전트 파크에는 겨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했으며 봄 내음이 달콤했다. 나는 햇볕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 안의 짐승은 기억을 핥으며 입맛을 다셨고, 정신적인 쪽은 조금 졸면서 나중에 참회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시작할 마음은 먹지 않았다. 어쨌든 나도 이웃들과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고, 부지런히 베푸는 내 선의를 그들이 게으르게 내버려 두는 잔인함과 견주어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허영에 찬 생각을 하던 순간, 메스꺼움이 덮쳐 왔다. 끔찍한 구역질과 더없이 지독한 몸서리였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나를 기진하게 했다. 그리고 기진함마저 가라앉자, 나는 생각의 기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대담해지고, 위험을 업신여기고, 의무의 끈이 풀려 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쪼그라든 팔다리에 옷이 볼품없이 걸려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힘줄이 불거지고 털투성이였다. 나는 다시 에드워드 하이드였다.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 안전했고, 부유했으며, 사랑받았고, 집 식당에서는 나를 위해 식탁보를 깔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인류 모두의 사냥감, 쫓기는 자, 집 없는 자, 이름난 살인자, 교수대에 매인 몸이었다.

내 이성은 흔들렸지만 나를 아주 저버리지는 않았다. 두 번째 성격일 때면 내 능력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기운이 더 팽팽하게 탄력 있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나는 한 번 넘게 보아 왔다. 그래서 지킬이라면 어쩌면 무너졌을 자리에서, 하이드는 그 순간의 중대함에 걸맞게 일어섰다. 내 약은 서재의 장 가운데 하나에 있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간단 말인가? 그것이 내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짓누르며) 풀려고 매달린 문제였다. 실험실 문은 내가 잠가 버렸다. 본채로 들어가려 하면 내 하인들이 나를 교수대로 넘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래니언을 떠올렸다. 어떻게 그에게 연락한단 말인가? 어떻게 설득한단 말인가? 거리에서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낯설고 불쾌한 손님인 내가 어떻게 그 이름난 의사를 설득해 그의 동료 지킬 박사의 서재를 뒤지게 한단 말인가? 그때 내 본래의 성격 가운데 한 부분이 아직 내게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내 글씨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 하나를 떠올리자마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서 나는 옷매무새를 될 수 있는 대로 고치고, 지나가는 이륜 삯마차를 불러 세워, 마침 이름이 기억난 포틀랜드 가의 어느 호텔로 갔다. 내 모습을 보고(그 옷이 감싼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었더라도, 정말이지 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마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악마 같은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시들었다. 그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더욱 다행한 일이었다. 한순간만 더 지났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그를 마부석에서 끌어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관에 들어서며 나는 종업원들이 떨 만큼 시커먼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서로 눈짓 하나 주고받지 않았다. 그저 굽실거리며 내 주문을

받고 나를 별실로 안내한 다음 글 쓸 도구를 가져다주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하이드는 내게도 새로운 존재였다. 그는 터무니없는 분노에 떨었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고통을 주고 싶어 몸이 달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 존재는 영리했다. 크나큰 의지력으로 분노를 다스렸고, 래니언에게 한 통, 풀에게 한 통, 중요한 편지 두 통을 지었으며, 그것들이 확실히 부쳐졌다는 증거를 받으려고 등기로 부치라고 일러 내보냈다. 그때부터 그는 별실의 난롯가에 하루 종일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는 거기서 두려움과 단둘이 앉아 저녁을 먹었고, 시중드는 사람은 그의 눈길 앞에서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밤이 완전히 깊어지자 그는 거기서 나와 지붕 덮인 삯마차 구석에 몸을 싣고, 도시의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나는 그라고 말한다. 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지옥의 자식에게는 인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살아 있는 것은 두려움과 증오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부가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그가 마차를 보내 버리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 눈에 띄기 십상인 몰골로 밤길을 오가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모험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비천한 정념은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날뛰었다. 그는 두려움에 쫓기며 빠르게 걸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사람이 덜 다니는 거리로 숨듯이 다니면서,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1분 1분 세었다. 한번은 어떤 여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성냥 한 갑을 사라고 했던 것 같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후려쳤고, 여자는 달아났다.

래니언의 집에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오랜 친구의 공포가 어쩌면 내게 얼마간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적어도 그것은 내가 그 몇 시간을 돌아보며 느끼는 혐오에 비하면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다. 내게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교수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이드라는 존재가

된다는 공포였다. 나는 래니언의 질책을 반쯤 꿈결에 들었고, 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든 것도 반쯤 꿈결이었다. 그날 하루 기진맥진했던 끝에 나는 깊고 매서운 잠에 빠졌는데, 나를 쥐어짜는 악몽조차 그 잠을 깨뜨리지 못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는 흔들리고 약해져 있었지만 기운은 되찾아 있었다. 내 안에서 잠든 그 짐승을 생각하면 여전히 미웠고 두려웠으며, 전날의 소름 끼치는 위험을 물론 잊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집에, 내 집에, 내 약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빠져나왔다는 감사가 내 영혼에서 어찌나 강하게 빛났던지, 그 빛은 희망의 밝음에 거의 맞먹었다.

아침을 먹은 뒤 차가운 공기를 즐겁게 들이마시며 안마당을 느긋하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변신을 알리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각이 다시 나를 덮쳤다. 서재 안으로 몸을 피할 겨를이 겨우 있었을 뿐, 나는 다시 하이드의 정념으로 날뛰며 얼어붙고 있었다. 이번에는 나를 나 자신으로 되돌리는 데 두 배의 양이 들었다. 그리고 아아! 여섯 시간 뒤, 내가 슬프게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고통이 되돌아왔고, 약을 다시 먹어야 했다. 한마디로, 그날부터 나는 마치 체조를 하듯 크나큰 힘을 들여서만, 그것도 약이 곧바로 북돋워 줄 때에만 지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낮이고 밤이고 어느 때나 나는 그 전조의 몸서리에 사로잡혔다. 무엇보다 잠이 들면, 아니 의자에서 잠깐 졸기라도 하면, 깨어날 때는 언제나 하이드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파멸의 긴장 아래,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불면, 그래,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불면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열병에 먹혀 속이 텅 빈 존재, 몸도 마음도 나른하게 쇠약한 존재, 단 하나의 생각, 곧 내 다른 자아에 대한 공포에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잠이 들거나 약효가 다하면, 나는 (변신의 고통이 날마다 덜 두드러졌으므로) 거의 넘어가는 틈도

없이 펄쩍 뛰어, 공포의 영상이 넘쳐흐르는 상상과, 까닭 없는 증오로 끓어오르는 영혼과, 날뛰는 삶의 기운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몸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이드의 힘은 지킬이 병약해지는 만큼 자라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둘을 갈라놓은 증오는 분명히 양쪽 다 똑같았다. 지킬에게 그것은 생명의 본능이었다. 그는 이제 의식의 현상 몇 가지를 자기와 함께 나누고 죽음까지 함께 물려받을 그 존재의 온전한 기형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의 괴로움 가운데 가장 쓰라린 부분이었던 이 공동의 끈을 넘어, 그는 하이드를 그 모든 생명의 기운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을 뿐 아니라 생명 없는 무엇으로 여겼다. 그것이 충격적인 점이었다. 구렁의 진흙이 비명과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것, 형체 없는 먼지가 손짓하며 죄를 짓는다는 것, 죽어서 아무 모양도 없는 것이 생명의 직분을 가로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 그 반역하는 공포가 아내보다 더 가까이, 눈보다 더 가까이 그와 엮여 있다는 것, 그의 살 속에 갇혀 누워 있어서 그것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나약해지는 시간마다, 잠에 마음을 놓는 순간마다, 그것이 그를 이기고 그를 삶에서 몰아낸다는 것. 하이드가 지킬에게 품은 증오는 종류가 달랐다. 교수대가 두려운 그는 끊임없이 일시적인 자살을 저질러, 한 인격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종속된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혐오했고, 지킬이 이제 빠져든 낙담을 혐오했으며, 자기를 바라보는 그 혐오의 눈길에 분개했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 같은 장난으로 나를 괴롭혔다. 내 책의 책장에 내 글씨로 신성 모독의 말을 휘갈겨 놓고, 편지들을 태우고, 내 아버지의 초상화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정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나를 파멸에 끌어들이려고 오래전에 자기 자신을 파멸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놀랍다. 더 나아가 말하겠다. 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메스껍고 얼어붙는

나이지만, 이 집착이 얼마나 비굴하고 뜨거운지를 떠올리면, 그리고 내가 자살로 그를 끊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나는 그가 가엾다는 마음이 든다.

이 이야기를 더 늘어놓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시간도 무섭게 모자란다.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고통에조차 습관은, 아니, 위안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무감각, 절망의 어떤 체념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니 마지막 재앙이 지금 닥쳐와 마침내 나를 내 얼굴과 본성에서 끊어 놓지 않았더라면, 내 벌은 몇 해고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첫 실험 때부터 한 번도 새로 사들이지 않은 염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새로 사 오게 해서 약을 섞었다. 끓어오르는 것이 뒤따랐고, 첫 번째 빛깔 변화는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마셨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내가 런던을 얼마나 샅샅이 뒤지게 했는지는 풀에게 들으면 알 것이다. 헛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처음 사들인 염이 불순했으며, 그 알 수 없는 불순물이 약에 효험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한 주쯤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옛 가루약의 마지막 한 봉지의 힘을 빌려 이 진술을 끝맺고 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헨리 지킬이 자기 생각을 하고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지금은 얼마나 서글프게 달라졌는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글을 끝맺는 일을 너무 오래 미루어서도 안 된다. 내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조심과 크나큰 행운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쓰는 도중에 변신의 진통이 나를 덮친다면, 하이드는 이것을 갈가리 찢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치워 둔 뒤 얼마쯤 시간이 흐른다면, 그의 놀라운 이기심과, 눈앞의 순간에만 갇혀 있는 그 성질 덕분에 이 글은 어쩌면 다시 한번 그의 원숭이 같은 앙심을 피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우리 둘을 조여 오는 파멸이 이미

그를 바꾸어 놓고 짓눌러 놓았다. 지금부터 30분 뒤, 내가 다시 그리고 영원히 그 증오스러운 인격을 입게 될 때, 나는 내가 어떻게 의자에 앉아 몸서리치며 울지, 아니면 더없이 긴장하고 겁에 질린 채 넋을 빼고 귀를 기울이며 이 방(이 땅 위에 남은 내 마지막 피난처)을 오락가락 서성이며 위협하는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곤두세울지 안다.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풀려날 용기를 찾을까? 하느님만이 아신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지금이 내 참된 죽음의 시간이다. 이 시간 이후 일어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 그러니 이제 펜을 내려놓고 고백을 봉하며, 저 불행한 헨리 지킬의 생애를 여기서 끝맺는다.

판권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원제 ·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은이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 1850~1894)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86년 1월, 런던 롱먼스 그린 출판사.

저본 · 1886년판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영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25,529단어 · 10장 · 338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4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94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9